

연극 「글로리아」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7-08

Vol. 206
July-August 2017

뮤지컬 「영웅」

울산문화예술회관
Ulsan Culture & Arts Center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07
08

Vol. 206

2017 / July-August

Special Performance

- 04 | 기획공연 I
뮤지컬 「영웅」
- 06 | 기획공연 II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 08 | 기획공연 III
연극 「글로리아」



Special Exhibition & Art Class

- 10 | 기획전시 I
광역시승격 20주년 기념 특별 기획전시
「미디어 아트 인 울산」
- 12 | 기획전시 II
초청기획전시 「제29회 대한민국서예
대전 울산展」
- 14 | 기획전시 III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
「7~8월의 작가 이정빈展」
- 16 | 아트클래스



울산광역시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7년 7·8월호 / 통권 206호

발행처_ 울산문화예술회관 /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달동)
홈페이지 <http://ucac.ulsan.go.kr>

발행인_ 진부호 울산문화예술회관장

기획·편집_ 홍보마케팅팀 (T. 052-226-8241~3)

디자인·제작_ 디자인 스토리

Contents

Art & Performance

- 17 | 울산시립합창단
울산시립합창단 제100회 정기연주회
- 18 | 울산시립교향악단
마에스트로시리즈 3
- 20 | 울산시립교향악단
울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 22 | 울산시립합창단
납량특집 「무서운 음악회」
그 다섯번째 이야기



Art &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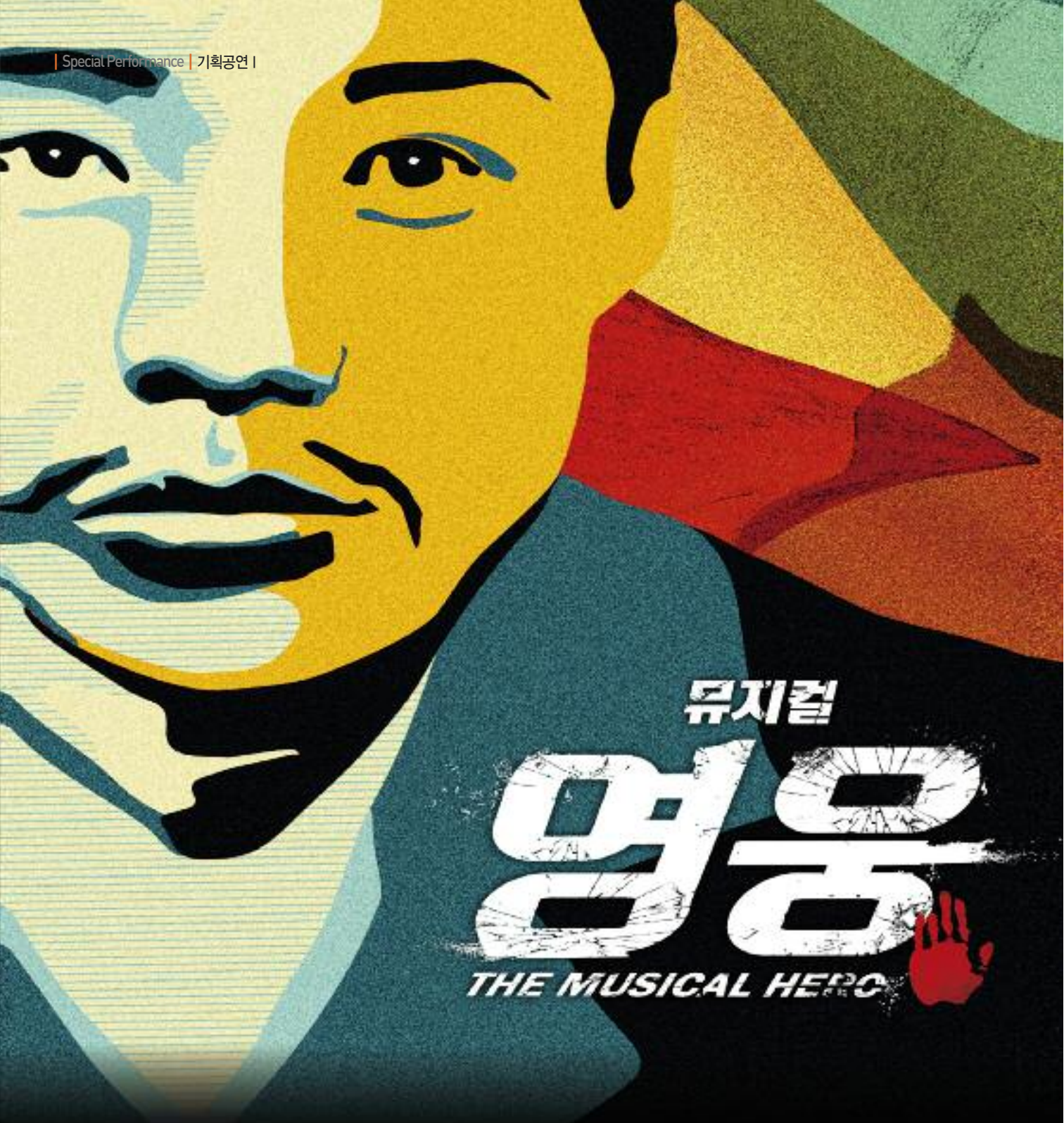
- 23 | 이탈리아 통신
파스타
- 26 | 예술을 말하다 I
조아키노 로시니5
- 30 | 예술을 말하다 II
뉴욕공연여행 「링크센터」
- 33 | 예술을 말하다 III
티투스 개선문
- 36 | 김용진의 Piano Forte
음악 in Europe
- 38 |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뮤지컬 42번가



Information

- 41 | 7·8월 공연·전시가이드
- 44 | 울산지역 문화예술회관
공연·전시 정보
- 46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 47 |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 Special Performance | 기획공연 |



뮤지컬
명웅
THE MUSICAL HERO

2017. 7. 14.(금) ~ 16.(일)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문화예술회관 후원  울산광역시 후원  울산광역시 후원  울산광역시 후원

영웅이 그리워지는 시대. 대한민국이여, 진정한 영웅을 만나라!

대한민국 뮤지컬을 평정하다!
대한민국 뮤지컬 역사상 불멸의 기록!

제 4회 뮤지컬 어워즈 6관왕
제 16회 한국 뮤지컬대상 시상식 6관왕
제 1회 예그린 어워드 5관왕

대한민국 평단과 관객들의 압도적인 찬사!

한국 창작 뮤지컬 40여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작품이란 평가마저 나왔다 - 중앙일보 -
관객들의 기대치는 높아지지만 '영웅'은 그런 관객들까지도 진정성으로 만족시킨다. - SBS-
애국심에 호소하는 감성적인 수준을 넘어 탄탄한 작품성을 보여줬다 - 세계일보 -

대한민국을 넘어 브로드웨이와 14억 대륙의 가슴까지 적셨다!

윤호진 연출의 프로덕션은 시각적으로 빼어나게 매력적이다. 스타일이 살아있는 초특급 액션이 어우러진 화려한 서사 뮤지컬! - 뉴욕포스트 -
풍성하고, 매혹적인, 마음을 사로잡는 영화 같은 작품! - By Associated Press -

SYNOPSIS

우리들의 외침, 세상이 들으리라 사랑하는 조국을 위해

대한제국의 주권이 일본에게 완전히 빼앗길 위기에 놓인 1909년, 갓 서른 살의 조선 청년 안중근은 러시아 연주의 자작나무 숲에서 동지들과 단지(斷指)동맹으로써 독립운동의 결의를 다진다.

한성의 경복궁

명성황후 시해 당시 어린 공녀로서 그 참상을 목격해야 했던 설희는 김 내관에게 독립운동에 투신할 뜻을 밝힌다. 황실의 비밀정보조직 제국익문사를 몰래 이끌고 있는 김 내관은 안중근을 비롯한 제국익문사 요원들에게 설희를 소개시킨다. 이렇게 해서 설희는 일본으로, 안중근은 다시 러시아로 먼 길을 떠난다.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한편 일본 도쿄로 건너가 게이샤가 된 설희는 마침내 조선 초대통감직을 마치고 도쿄로 돌아와 있는 이토히로부미의 눈에 들게 된다. 추밀원 의장으로서 일본 정계의 막후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이토히로부미, 외무대신은 그런 이토에게 만주 하얼빈으로 가 러시아의 외무장관과 회담을 벌일 것을 청한다. 대륙진출의 오랜 꿈을 이루기 위해 노쇠한 몸을 이끌고 만주로 떠나는 이토, 그의 곁에는 '나미다'라는 이름의 게이샤 설희가 있다. 이토의 만주행을 들은 안중근은 그를 암살하는 것 만이 조선독립의 길임을 다짐하고 동지들과 거사를 준비한다. 그렇게 준비된 브라우닝 권총, 7발의 총알을 장전 후 하얼빈 역으로 대한독립을 다짐하고 먼 길을 떠나는데.. 그리고, 울려 퍼지는 7발의 총성...

CAST

안중근 | 정성화, 이지훈 | 이토히로부미 | 김도형, 이정열, 윤승욱 | 설희 | 리사, 정재은 | 링링 | 허민진, 이지민 | 우덕순 | 정의욱 | 조도선 | 노태민 | 유동하 | 박종찬 | 왕웨이 | 황이건
김내관 | 김봉환 | 최재형 | 장기용 | 조마리아 | 임선애 | 외무대신 | 조영태 | 와다 | 김상현 | 주인 게이샤 | 김사라 | 외 전문 뮤지컬배우 20여 명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내한공연
St. Petersburg State Ballet on Ice

아이스발레

백조의 호수
Swan Lake



2017. 8. 19.(토) 14:00, 18:00 / 8. 20.(일) 15:00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공연시간 | 100분(인터미션 20분) • 입장료 | V 5만원, R 4만원, S 3만원 • 입장등급 | 48개월 이상 관람가
출연 |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발레단 • 배급 | (주)서울예술기획 • 주최 | 울산광역시 • 주관 | 울산문화예술회관

무더운 여름, 도심 속으로 떠나는 고품격 문화바캉스

새하얀 은반 위에 펼쳐지는 꿈과 환상의 감동스토리



러시아의 보석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 발레단’

발레와 피겨 스케이팅 강국 러시아가 사랑하는 예술과 낭만의 도시, 상트 페테르부르크의 명물! ‘빙상 위의 연인’으로 사랑받는 콘스탄틴 보얀스키와 러시아 3대 발레리노로 불리는 ‘인간 문화재’ 콘스탄틴 라사딘이 탄생시킨 세계 유일의 아이스발레단! 67년 창단 이래 유럽과 북미, 아시아 전역에서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잠자는 숲속의 공주>, <로미오와 줄리엣>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10,000회 이상 펼치며 전 세계 관객들의 사랑을 받아온 고품격 공연의 주역!

2017 여름, 공연장 무대가 아이스링크로 변한다?

상트 페테르부르크 국립 아이스 ‘백조의 호수’ 공연을 선사하기 위해 피겨 스케이팅의 여왕, 김연아 선수의 공연을 다수 진행한 **한국 최고의 아이스링크 제작팀이 선보이는 30시간의 마법!** 특별 공법으로 공연장의 일반 무대를 아이스링크로 탈바꿈하여 관객들에게 최고의 공연을 선사한다.

SYNOPSIS

■ 1장 - 궁전 정원

지그프리트 왕자의 21번째 생일. 여왕은 곧 왕위를 이을 아들에게 내일 있을 궁정무도회에서 신부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한다. 해가 질 무렵, 백조 무리가 지나가는 것을 본 지그프리트 왕자는 친구들과 함께 사랑을 간다.

■ 2장 - 호수

신비스러운 숲 속, 왕자는 눈 앞에서 한 마리의 백조가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하는 모습을 보며 차마 할 시위를 당기지 못한다. 그 여인은 바로 악마 로트바르트의 마법에 걸려 백조가 된 공주 오데뜨. 자정부터 새벽 사이에만 인간의 모습으로 있을 수 있는 그녀의 저주는 진정한 사랑으로만 풀릴 수 있어, 왕자는 다음날 무도회에 오데뜨를 초대하여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약속한다.

■ 3장 - 궁정 무도회

무도회 날, 왕궁의 모든 아름다운 처녀들이 왕자에게 선택되길 기다리며 춤을 춘다. 그러나 오직 오데뜨 생각 뿐인 왕자는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보이지 않자 절망에 빠진다. 그 순간 나타난 악마 로트바르트와 오데뜨를 닮은 그의 딸 오딜리아를 보며 오데뜨라고 믿은 왕자는 오딜리아에게 청혼하게 된다. 환영으로 나타난 오데뜨를 보고 실수를 깨달은 지그프리트는 그녀를 만나기 위해 숲 속으로 뛰어간다.

■ 4장 - 결혼식

어두운 밤, 백조들은 사랑을 잃고 슬퍼하는 오데뜨를 위해 춤을 춘다. 이때 왕자가 나타나 오데뜨에게 자신이 속았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오데뜨는 이제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사라졌다고 슬퍼한다. 로트바르트가 둘을 다시 떼어놓으려고 나타나 방해하지만, 지그프리트 왕자는 그녀를 끝까지 지킬 것을 맹세한다.

글로리아 GLORIA

BY Branden Jacobs-Jenkins

2017. 8. 25.(금) ~ 26.(토)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올해 초연된 소극장 연극 중에서 재미와 충격으로 손꼽을 만한 작품이다.

이 작품은 어느 사회에서나 비슷하게 펼쳐질 것 같은 인간 군상(群像)의 이기적인 모습을 해부한다. - 조선일보 -

‘글로리아’는 반전을 꾀한 스릴러란 겉에 풍자라는 속을 갖췄다. - 매일경제 -

파탄의 인간관계 너머 일말의 희망... 기대 이상의 울림. - 경향신문 -

몹시 현대적이고, 지나치게 현실적이다. - 동아일보 -

About Play 1 2017년 새로워진 구성으로 돌아온 연극 <글로리아>

2016년 풀리처상 드라마 부문에 노미네이트되며 다시 한번 작품성을 인정받은 연극 <글로리아>가 새로워진 구성으로 재공연된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견디어가는 여러 인물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초연배우 정원조, 손지윤, 오정택, 공예지와 탄탄한 연기로 주목 받고 있는 박지숙, 이형훈이 합류하여 더욱 기대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About Play 2 신랄하고 위트 넘치는 대사들의 향연, 사회문제를 넘어선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작품

<글로리아>는 직장생활에서 부속품처럼 일하는 등장인물들의 유머러스하고 신랄한 대사들이 끊임없이 오고 가는 작품이다. 이 작품은 직장인들의 한탄과 불만, 시기와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사회에 팽배한 각종 편견과 인식을 핑퐁처럼 오가는 대사들 속에 예리하게 녹여낸다.

About Play 3 지금, 여기, 이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극

<글로리아>는 비슷한 상황에서 각자 다른 욕망을 꿈꾸는 극중 인물들이 바로 인간 그 자체의 모습이며, 처해진 조건과 상황에 따라 '그 누구든 그 누구도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 작품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진짜 현실을 보여주며, 공감을 넘어 진한 울림을 전달한다.

SYNOPSIS

뉴욕 한복판, 미드타운 오피스의 잡지 편집부. 누군가는 꿈을 위해, 누군가는 야망을 위해, 그리고 누군가는 어쩌다 보니 같은 사무실에서 어제와 다를 바 없는 하루를 보내고 있다.

'딘'은 언젠가는 자기가 쓴 책을 출판하고 싶어하고 비슷한 꿈을 가진 '켄드라'는 딘에게 늘 비아냥거린다. 인턴 '마일즈'는 6주간 이곳에 있었지만 아직도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자조적인 한탄과 불만으로 가득한 이 사무실에서 가장 오랜 기간 근무한 '글로리아'는 모든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는 대상이다. 그녀에게 이 직장은 삶의 전부이고 그녀가야 하는 사람도 이 곳의 사람들뿐이다. 하지만 지난 밤 그녀의 집들이 파티에 방문한 사람은 오직 '딘'뿐이다.

'글로리아'는 평소보다 더 암울하고 이상한 기운으로 편집부에 두 번의 발걸음을 한다. 사람들은 그녀가 지난 밤 파티 때문에 그러리라 으레 짐작한다. 그리고 각자 자기 일로 시간을 보내고 있던 오후, '글로리아'의 예상치 못한 등장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글로리아의 선택. 아무의 관심도 받지 못했던 그녀가 모두의 관심을 받기 시작한다. 그 사건 이후 '딘'은 글로리아란 이름으로 자신의 자서전을 각색하기 시작하고 '켄드라'는 글로리아에 대한 다른 시각의 글을 쓰려다 딘과 대치한다. 글로리아와 입사 동기였지만 그녀가 존재하는 줄도 몰랐던 '낸'은 자신의 풍부한 경험담을 토대로 그녀의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하는데...

MEDIA ART IN ULSAN

「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특별기획전시」

미디어 아트 인 울산

기간 : 7월 13일(목) ~ 8월 1일(화)까지 20일간

장소 : 울산문화예술회관 1,2,3,4전시장 (전관)

내용 : 전국작가 39명의 회화, 영상 등 현대미술작품 총 67점

설명 : 미술교육 - 10시, 11시(단체 사전예약) / 관람해설 - 2시, 3시, 4시, 5시(일반인 대상)

다양한 장르의 현대미술로 120만 울산시민의 문화행복을 기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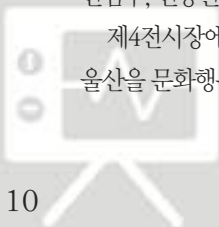
올해로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은 성년 울산을 기념하기 위해 울산문화예술회관은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전시를 제공하고 문화향유의 기회를 마련코자 다양한 미디어(media) 장르의 현대미술 작품을 한 자리에 전시하는 「미디어 아트 인 울산」을 7월 13일~8월 1일까지 제1·2·3·4전시장 전관에서 개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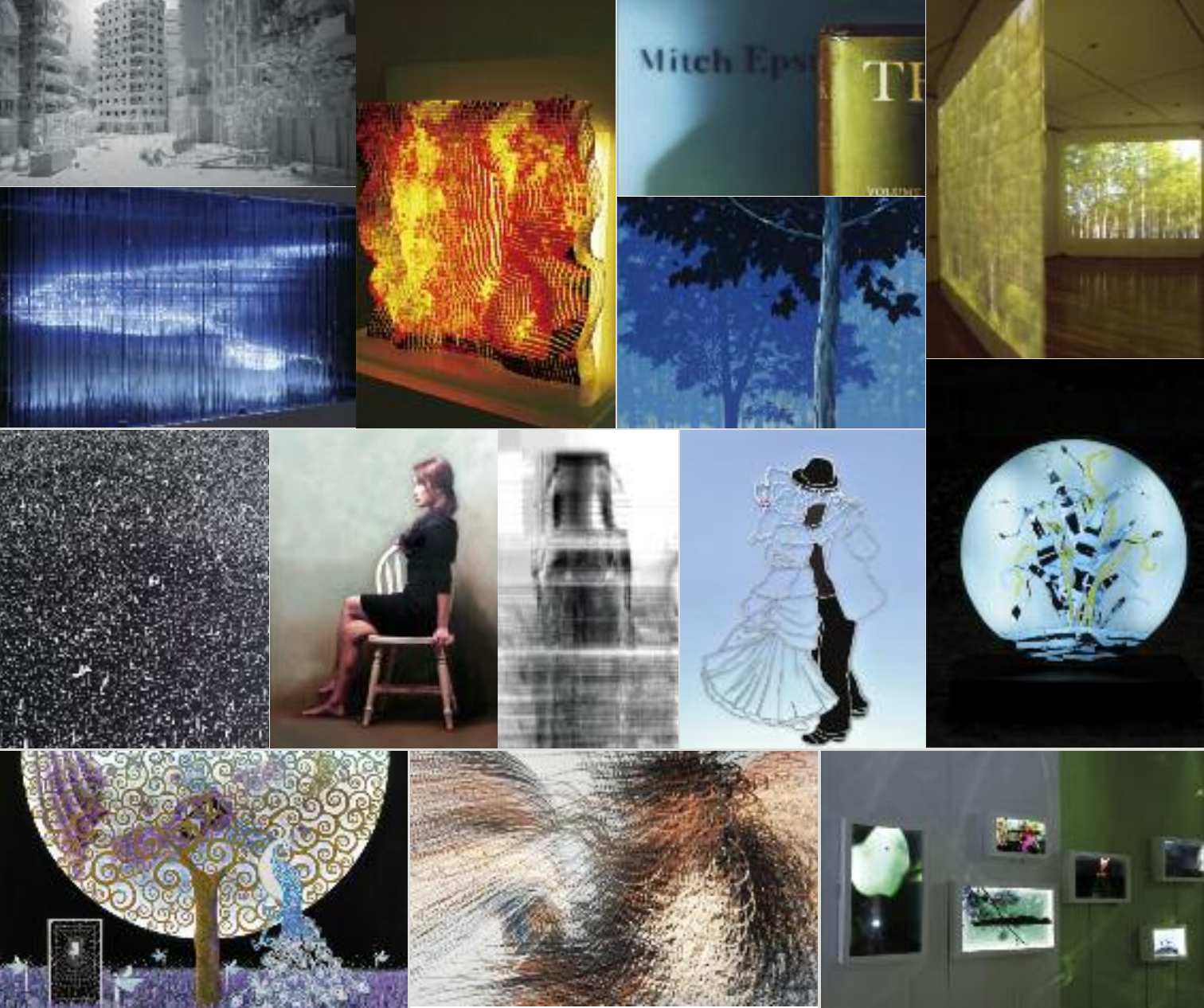
이번 전시는 '과학과 예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평면회화, 라이트 아트(Light Art), 인터랙티브 아트(Interactive Art), 설치 미술(Installation Art) 등 빛을 직접적인 매개로 삼은 작업부터 첨단 IT기술을 이용해 예술의 신기원을 주관적 모티브로 삼은 작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작품들로 전시장을 가득 채운다.

제1전시장에는 '회화의 깃발'이라는 테마로 순수자연의 미학에서 문명사회로 전위되어 가는 현상들을 평면회화 작품으로 표현한 구자승, 김경렬, 김종일, 박복규, 박영근, 설경철, 유미연, 윤병락, 이석주, 이철량, 장이규, 정현숙, 주태석, 최인선, 하태임, 한민영, 황주리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

제2·3전시장은 '상상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빠르게 변화하는 산업화 속에서 예술작품들이 새로운 조형언어가 되어 평면에서 입체조형으로 그리고 설치미술 등 서로 조합된 방식들로 작품을 표현한 강민규, 고봉수, 김진화, 박근우, 박상화, 박승모, 안유자, 전범주, 전용환, 정세용, 정운학, 정찬부, 조영철, 최수환, 한기창 작가가 참여한다.

제4전시장에서는 하이테크 시대 과학과 예술이 융합된 작품들로 인터랙티브 아트와 설치작품들이 전시되어 첨단 과학의 도시 울산을 문화행복도시로 향한 커뮤니티를 만들어 낸다. 작가만의 확실한 작품세계를 구축한 백주미, 빠 키, 오창근, 장지연, 하 원,





하태범, 한호 작가의 작품을 전시장에서 직접 감상하며 현대미술의 다양함을 직접 눈과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더불어 올해에는 지역의 인재들을 전문 도슨트로 양성한 작품해설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들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현대 미술 작품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이해 폭을 한층 넓혀줄 것이다.

국내·외적으로 잘 알려진 작가들의 작품 초청으로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 눈에 살펴 볼 수 있을 뿐 아니라 순수회화를 넘어 하이테크 기술과 예술이 융합된 작품들로 울산의 이미지를 더 높이는 계기가 마련될 「미디어 아트 인 울산」은 품격 높은 전시작품으로 지역 전시예술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과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들의 기대치 충족할 수 있는 전시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예술회관 초청기획전시」

제29회 대한민국서예대전 울산展

기간 : 7월 5일(수) ~ 7월 10일(월) 까지

장소 : 제1전시장

전국 서예작가들의 상호교류의 장으로 한국 서예술의 흐름과 경향을 살펴보고 서예문화 저변층을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하는 「대한민국서예대전 울산전」이 7월 5일부터 6일간 울산문화예술회관 제1전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제29회를 맞은 대한민국서예대전에서는 한글, 전서, 예서, 해서, 행초서, 문인화, 서각, 현대서예, 전각 부문에 3,159점이 출품되어 대상 1점, 우수상 3점, 특선 83점, 입선 812점 등 총 899점이 선정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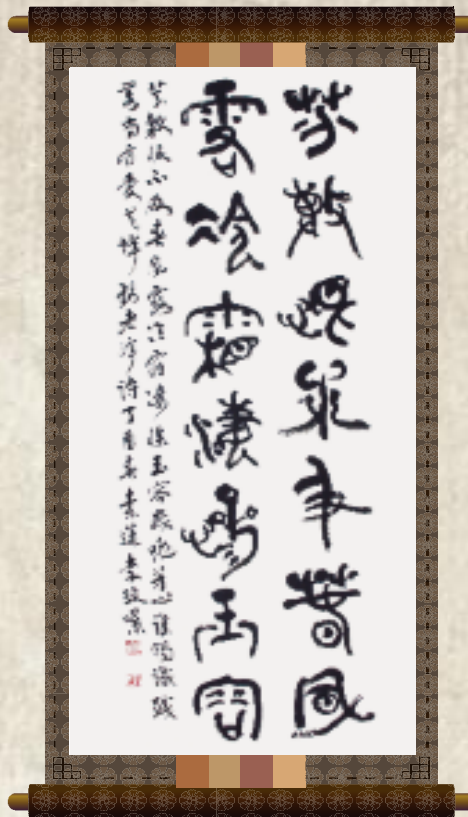
이번 울산초대전시에는 대한민국서예대전의 대상과 우수상, 특선 이상 입상작품 총 87점이 전시되며 난을 소재로 그린 김상옥 작품 ‘불이선란을 찾아서’ 작품을 필두로 작품의 구도와 먹, 필체가 어울어져 한복의 동양화를 연출하고 있는 작품, 담장에 피어난 매화꽃 향기를 읊은 왕안석의 시를 초서로 기운차고 활달하게 표현한 작품도 전시된다.

서예작품은 문자를 이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조형예술로 강인한 절개, 지조를 필획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정적이지만 문필에 따라서 강한기운을 느낄 수 있어 변화무쌍한 예술임에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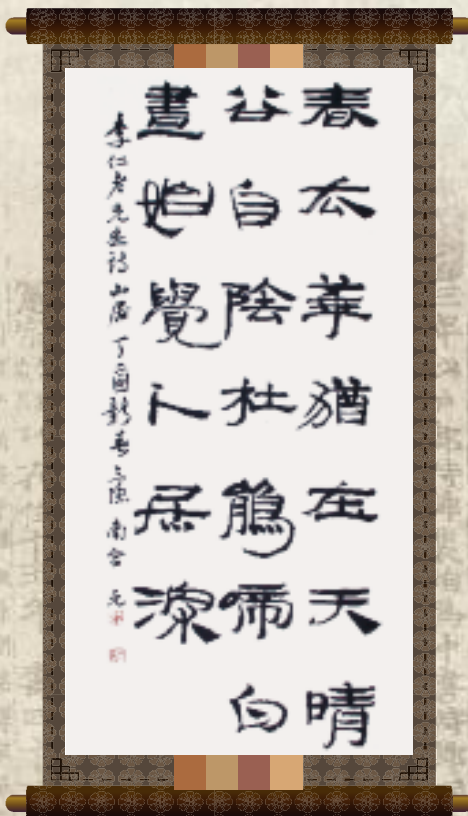
5월 2일 대구문화회관 전시를 시작으로 7월 5일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이어지는 이번 전시는 서예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수준 높은 서예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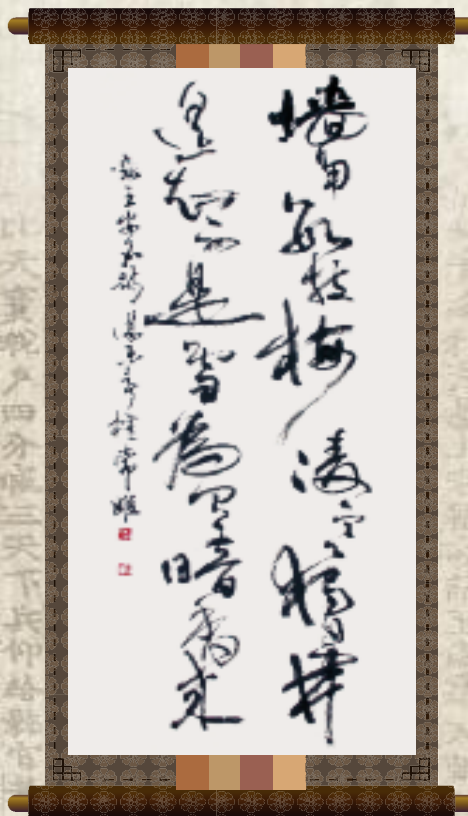
대상 / 김상옥작 · 불이선란을 찾아서



우수상 / 이민경작 · 국화



우수상 / 남궁원작 · 산거



우수상 / 권상희작 · 왕안석의 시

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

7~8 월의 작가 이정빈展

기간 : 7월 1일(토) ~ 8월 29일(화), 60일간

장소 : 갤러리 씬



117cmx91cm, 캔버스 위에 아크릴



53cmx46cm, 캔버스 위에 아크릴



53cmx46cm, 캔버스 위에 아크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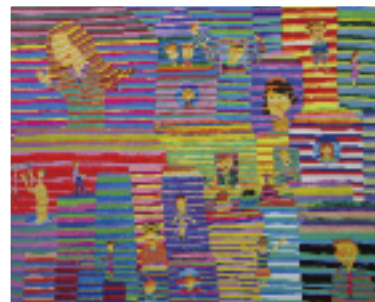
블라인드를 쳐 주세요



65cmx50cm, 캔버스 위에 아크릴



182cmx162cm, 캔버스 위에 아크릴



117cmx91cm, 캔버스 위에 아크릴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지원책으로 마련된 올해의 작가 개인전·2017의 세 번째 주자인 「7~8월의 작가 이정빈展」이 7월 1일부터 60일간 상설전시공간 “갤러리 씬”에서 개최된다.

이정빈 작가는 정식 미술교육을 받지 않고 독학으로 익힌 예술성을 발휘하며 울산지역에서 활동하는 작가로, 이번 전시에서는 연작 시리즈인 “블라인드를 쳐주세요” 작품을 선보인다.

작가는 블라인드 너머의 외부공간과 작가가 존재하는 내부공간 사이의 다름을 인식하고 현실과 분리된 자신만의 공간을 그리면서 그 속에서 안정감과 평화로움을 찾고 이러한 감정이 현대인들이 공감하는 공간이었음을 포착하고 있다.

작품을 처음 시도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작가는 “어쩌다 마주한 블라인드 너머의 풍경을 보고 아름답다고 생각하게 됐고 블라인드는 복잡하고 바쁜 일상을 막아주는 보호막 같았다. 블라인드 속 나는 독립적인 공간에 있었으며, 이 공간은 해로운 것들로부터 벗어나 평안한 공간이었다.”며 블라인드 속 세상을 평화로운 울타리라고 인식했다고 말한다.

또한, 블라인드는 형식적인 면 뿐 아니라 수평선의 반복과 다채로운 색의 조합들로 캔버스 위로 확장되어 공간과 공간을 분리하고 화폭에 담긴 하나 하나의 대상들은 삶에 대한 낙관과 긍정의 이미지를 보여주며 우리에게 인생의 진정한 행복과 치유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한다.

직선, 곡선과 원, 강렬한 원색으로 채워진 이정빈 작가의 작품은 20세기 초 스페인 화가 호안 미로(Joan Miro)의 그림처럼 너무나 단순해서 아이들이 멋대로 그린 작품 같아 보인다. 하지만 그녀의 작품은 느낌이 따뜻하고 블라인드를 쳐놓은 듯 수평선을 반복적으로 그려넣은 효과를 응용한 단순한 사실 묘사로 보는 이를 즐겁게 한다.

울산 지역의 부족한 전시공간을 해소하고 지역의 젊고 유망한 작가들을 발굴하고 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마련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 · 2017」은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예술가들을 배출하는 장으로 확산되어 나아가고 울산 전시 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마련되는 전시가 되기를 희망하며 지역 작가들의 용기와 희망이 되도록 울산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란다.

작가 프로필

이정빈 Lee Jeong-Bin

〈단체전〉

2010~2015 아름다운 눈빛미술제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2011~2014 아트프로젝트 울산 (중구문화의 거리, 울산)

2011 호랑이똥 회원전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

현재 호랑이똥 회원



시민과 함께하는 일상속의 문화예술교육 「아트 클래스」 여름특강

울산문화예술회관 아트 클래스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어린이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의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통해 휴가를 즐길 수 있도록 여름특강을 마련하였다.

이번 여름특강은 스페셜과 체험프로그램 각 3과목(총 6과목)으로 구성되어있다. 그 중 스페셜과정은 음악사의 전복·반전과 관련한 역사적 장면을 살펴보는 강현(음악평론가)의 '대중음악의 이해', 연극을 통한 삶·삶을 통한 연극의 경계와 연대에 대한 안치운(연극평론가)의 '연극과 삶', 그리고 예술가들의 우정과 사랑등을 알아보는 허나영(미술평론가)의 '예술가의 라이벌'로 진행된다.

체험과정에는 윤은숙(서양화가)과 나는야! 복면왕을 주제로 예술과 놀이를 더한 '창작놀이학교'를 운영한다. 그리고 박성란(예술가)과 함께 작품을 직접 살펴보고 사물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하여 작품제작을 해보는 '예술가워크숍'이 있다. 또 색다른 시각으로 일상을 살펴보고 다양한 표현기법을 통해 활동하는 '다르게 생각하기'는 윤혜정(작가)과 운영된다.

이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상설교육장에서 운영하며, 7월 10일부터 24일까지 15일간 회관 홈페이지(ucac.ulsan.go.kr) 및 방문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수강생을 모집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시교육팀(052-226-8254)으로 문의하면 된다.

교육개요

- 신청기간 : 2017. 7. 10.(월) ~ 7. 24.(월), 15일간
- 교육기간 : 2017. 8. 7.(월) ~ 8. 11.(금), 5일간
- 교육장소 : 상설교육장 이론 · 실기실
- 수 강 료 : 1인 5,000원

교육과정

스페셜	대중음악의 이해	8월 7일 (월)	14:00	일반시민 30명 강현 (음악평론가)
	연극과 삶	8월 8일 (화)	14:00	일반시민 30명 안치운 (연극평론가)
	예술가의 라이벌	8월 11일 (금)	14:00	일반시민 30명 허나영 (미술비평가)
체험	창작놀이학교	8월 7일 (월)	10:00/14:00	가족 각 15명 윤은숙 (서양화가)
	예술가 워크숍	8월 9일 (수)	10:00/14:00	가족 각 15명 박성란 (예술가)
	다르게 생각하기	8월 11일 (금)	10:00/14:00	어린이 각 15명 윤혜정 (작가)

울산시립합창단 제100회 정기연주회

위대한 합창의 역사

울산시립합창단



지휘자 나영수
2000. 02 ~ 2007. 12



지휘자 김명엽
2008. 01 ~ 2011. 12



지휘자 구현
2012. 01 ~ 2014. 07



지휘자 민인기
2015. 05 ~



울산시립합창단



민주, 김혜은



민주, 김혜은

2017. 7. 18.(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제100회 정기연주회를 기념하여,
울산시립합창단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미래의 청사진을 제기할 수 있는 공연.
제4대 나영수 지휘자, 제5대 김명엽 지휘자, 제6대 구현 지휘자 그리고 현
제7대 지휘자까지 재임기간 대표적 합창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 V석 2만원 / R석 1만원 / S석 7천원 / A석 5천원

※ 일반 관람객 30%, 단체(10인 이상) 20%, 학생(초·중·고) 50% 등

공연문의 ucac.ulsan.go.kr / Tel. 275-9623~8



MAESTRO SERIES 3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193th Subscription Concert
Maestro Series3
Tue 4th July, 2017, 8:00PM
Conductor : Son Yeoul-Choi
Pianist : ChoongMo-Kang

마에스트로 시리즈 3



2017. 7. 4.(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최수열 피아노 강충모



MAESTRO SERIES 3

세계적인 교향악단의 지휘자들과의 함께 하는 마에스트로 시리즈 세 번째 시간으로 21세기가 원하는 이상적인 젊은 지휘자 최수열이 지휘봉을 잡고 열정에 철학을 더해 수많은 청중의 가슴을 울리는 피아니스트 강충모가 협연합니다. 젊은 열정이 만들어내는 음악의 파동, 음표를 넘어 무대와 청중을 아우르는 지휘자 최수열의 신선함과 2000년 밀레니엄을 바흐 전곡 사이클로 시작하며 한국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최정상의 피아니스트 강충모! 이들이 만들어내는 최고의 연주회를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지휘자 최수열 (Conductor SooYeoul-Choi)

- 프랑스 브장송 국제 지휘콩쿠르 결승진출
- 독일중부방송교향악단, 예나필하모닉, 중국 국가대극원 오케스트라, 대만 국립교향악단, 일본 센다이 필하모닉 등 지휘
- 성남아트센터 마티네 콘서트시리즈 음악감독
- 2015년 슈베르트의 교향곡 전곡 사이클 국내 최초 완주
- '코리아 2030 파워 리더 30인' 및 '차세대를 이끌 젊은 예술가 10인' 선정
- 현) 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피아니스트 강충모 (Pianist ChoongMo-Kang)

- 서울음대, 샌프란시스코 음악원, 피바디 음악원 졸업
- 모스크바 필하모닉, 런던 필하모닉, 체코국립교향악단, 국내 유명 오케스트라와 협연
- 런던, 옥스포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등 독주회
- 바르샤바 쇼팽 콩쿠르, 더블린 국제콩쿠르, 상하이 국제콩쿠르, 시드니 국제콩쿠르, 클리블랜드 국제콩쿠르 등 심사위원
- 줄리아드 음악원 피아노과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 피바디 음악원 교수 역임
- 현) 일본 토호 음악원 초빙교수

Program

▶ 베버 / 오페라 [마탄의 사수] 서곡

Weber / Overture Opera [Der Freischütz]

▶ 라흐마니노프 /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

Rachmaninoff / Rhapsody on a Theme of Paganini

INTERMISSION (휴식)

▶ 슈트라우스 / 교향시 [죽음과 변용] 작품24

R. Strauss / Symphonic poem [Tod und Verklärung] op.24

INFORMATION

티켓 R석/3만원 S석/2만원 A석/1만원

할인 회원30%, 단체10인이상 20%, 학생(초,중,고)50% 할인

공연문의 Tel. 275-9623~8 <http://ucac.ulsan.go.kr>

주최 울산광역시

주관 울산시립예술단

※ 본 공연은 초등학생 이상 입장 가능한 공연입니다.

울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2017. 8. 25.(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김홍재 바이올린 피호영 소프라노 황경미 테너 박지민

•전석 1만원 •회원30%, 단체10인이상 20%, 학생(초,중,고)50% 할인

울산시립교향악단에서는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 기념 음악회를 특별기획으로 마련합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시립교향악단을 이끌며 시민여러분의 많은 사랑을 받았던 마에스트로 김홍재가 지휘하고, 무대에서 늘 새롭고 진취적인 모습으로 다가서는 바이올리니스트 피호영과 소프라노 한경미, 테너 박지민이 함께 하는 뜻깊은 연주회가 될 것입니다.



지휘 김 홍 재



바이올린 피 호 영



소프라노 한 경 미



테너 박 지 민

Program

쇼스타코비치 / 축전서곡 작품96 Shostakovich / Festive Overture op.96

멘델스존 / 바이올린 협주곡 마단조 작품64 〈바이올린 피호영〉 Mendelssohn / Violin Concerto in e minor op.64

〈INTERMISSION 휴식〉

구 노 : 오페라 '로미오와 줄리엣' 중 '아! 꿈속에 살고 싶어라' (소프라노 한경미)

Gounod : 'Ah! Je veux vivre' From Opera Roméo Et Juliette

엔니오 모리코네 : '넬라 판타지아' (소프라노 한경미) Ennio Morricone : 'Nella Fantasia'

Because song (테너 박지민)

R.스트라우스 / 관현악모음곡 '장미의 기사' 작품59 R. Strauss / 'Der Rosenkavalier' Suite op.59

* 프로그램은 사정상 변경될수 있습니다.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남량특집 '무서운음악회'

Horror program 'SCARY CONCERT'
Ulsan Metropolitan Chorus
Summer Special concert
Thu. 31th Aug. 2017. PM 8:00

그 다섯 번째 이야기

2017. 8. 31.(목) 오후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울산시립합창단

facebook



지 휘 : 민인기
티 켓 : 전석 7천원 (회원 30%, 단체 20% 할인적용 등)
관람등급 : 초등학교 이상 입장가
주최_ 울산광역시 주관_ 울산시립예술단

파스타

이탈리아는 흔히 중국, 프랑스, 타이와 함께 세계 4대 음식의 나라에 꼽힌다. 요리의 미적 가치를 별개로 하고 '세계 어느 곳에서도 즐길 수 있는냐'를 기준으로 삼으면 중국, 이탈리아, 일본, 인도를 세계 4대 음식의 나라로 꼽을 수 있는데 이탈리아는 미적 가치, 대중성 어느 기준으로 보더라도 세계 4대 음식의 나라로 꼽는 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이탈리아 음식으로는 피자(Pizza)와 파스타(Pasta)가 대표적이다.

예전에는 쉽게 집에서 요리해 먹을 수 없었고 레스토랑이나 가야 먹을 수 있었던 파스타, 이제는 우리나라 마트에서도 재료들을 쉽게 구할 수 있어 집에서 만들어 먹는 사람들이 차츰 늘고 있는 추세다.

파스타는 이탈리아어의 '임파스타레(impastare, 반죽하다)'의 어원으로 밀가루와 달걀만으로 반죽한 면을 말한다. 파스타는 대부분 글루텐(gluten)이 많이 들어 있는 듀럼밀(durum wheat

경질밀)의 배아를 갈아서 만든 세몰리나(semolina)를 이용해 만든다.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는 그냥 우리의 밥과 같은 일상의 주식이다. 우리가 흰밥에 보리, 현미, 흑미, 콩 등 여러 가지 잡곡을 섞어 밥을 만들어 먹는 것처럼 이탈리아인들에게 파스타는 첨가하는 재료와 모양에 따라 이름을 달리하는데, 그 종류만 해도 600여 종에 이른다. 각각의 종류에는 잘 어울리는 소스가 있으며 면과 소스가 잘 어우러져야 최상의 파스타 요리가 탄생한다.

우선 파스타는 면의 상태에 따라 생(生)면인 파스타 프레스카(Pasta Fresca)와 건조 면인 파스타 아슈타(Pastasciutta) 그리고 계란을 반죽에 섞어 만든 파스타 알우오보(Pasta all'uovo)로 나뉜다.

또한 파스타의 형태에 따라 크게 파스타 룱가(Pasta Lunga), 파스타 인 니디 또는 마타세(Pasta in nidi o matasse), 파스타 꼬르따(Pasta corta), 파스타 미누타 또는 파스티나(Pasta Minuta o Pastina)와 파스타 리피에나(Pasta ripiena)로 나눌 수 있다.

파스타 룱가는 주로 면 요리에 활용되며 스파게티(spaghetti),



파스타 룱가



파스타 꼬르따



파스타 꼬르따



파스타 인 니디 또는 마타세



파스타 꼬르따



링귀네(linguine -납작하게 뽑은 파스타로 이탈리아어로 '작은 혀'라는 뜻이다), 페델리니(fedellini), 탈리아텔레(tagliatelle), 라자냐(lasagna) 등이 있고 파스타 인 니디는 넓은 면 또는 두께가 얇은 종류로 파파르델레(pappardelle), 카펠리니(capellini), 딸리올리니(tagliolini), 페투치네(fettuccine) 등이 있다. 파스타 꼬르파는 짧은 길이의 파스타로 리가토니(rigatoni), 펜네(penne), 로텔레(rotelle), 푸질리(fusilli), 마카로니(macaroni), 파르팔레(farfalle) 등이 속하며 파스타 미누타는 이탈리아 스프인 미네스트레(Minestre)용으로 주로 사용되며 콰드루치(quadrucchi), 스텔리네(stelline) 디탈리니(ditalini) 등이 있다. 파스타 리피에나는 만두와 같이 파스타 면 안에 고기, 치즈, 야채 등을 넣은 파스타로 토르텔리니(tortellini), 라비올리(ravioli), 아놀로티(agnolotti) 등이 속한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것이 스파게티로 파스타와 스파게티가 같다고 생각하기도 하겠지만 스파게티는 수많은 파스타의 한 종류인 것이다. 제일 대중적인 스파게티 면의 파스타는 두께에 따라 이름이 또한 변한다. 제일 가는 것이 직경 1mm의 카펠리니(capellini)이다. '천사의 머리카락'이라는 의미로 직경이 0.2mm씩 증가됨에 따라 페디리니(1.2mm), 버미첼리(1.4mm), 스파게티니(1.6mm)라 부른다.

이 밖에도 감자와 밀가루, 달걀, 치즈 등으로 만든 이탈리아의 전통 요리로 우리나라 수제비와 비슷하지만 좀 더 부드러운 식감을 가지고 있는 노키(gnocchi)도 이탈리아 사람들이 즐겨 찾는 음식이다.

이태리어를 조금만 알고 있어도 파스타가 어떻게 생긴 모양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 조개, 나비, 바퀴, 연필 등의 모양으로 만든 파스타가 그대로 이름이 되기 때문이다.

이탈리아 요리는 밀라노·베네치아 중심의 북부 요리, 로마

중심의 중부 요리, 나폴리·시칠리아 섬 중심의 남부 요리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탈리아는 각 지방마다 독특한 음식 문화를 지니고 있다. 제노바 지역에서 많이 먹는 "트로피에 알 페스토"(Trofie al pesto)는 트로피에 파스타에 제노바 지역의 특산물 페스토 소스를 섞어서 만든 파스타로 신선한 바질향과 고소한 맛이 어우러져 풍미를 더 한다.

로마 지역에서 많이 먹는다고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중적인 파스타인 "스파게티 알라 카르보나라"(spaghetti alla carbonara)는 판체타(Pancetta), 달걀, 페코리노 로마노 치즈, 후추를 주로 사용해 만든다. 우리나라의 카르보나라를 생각하고 주문하면 조금은 당황스러울 수 있는 것이 풍부한 크림으로 만든 파스타가 아니라 계란 노른자를 이용한 파스타이기 때문에 맛의 차이는 분명히 있다.

지중해의 중심부에 위치한 이탈리아 남부에는 해산물이 풍부하고 올리브, 토마토도 많이 생산되어 이를 이용한 파스타 요리가 많다. 대표적으로 "스파게티 콘 레 봉골레"(spaghetti con le vongole)는 남부지방의 사람들이 많이 먹는 파스타로 조개(vongole), 올리브 오일, 마늘, 화이트 와인을 주로 사용해 만들며, 페페론치니(매운 고추)와 파슬리를 곁들여 먹는다. 치즈 가루는 뿌리지 않는다. 또한 파르팔레 알 살모네(farfalle al salmone)는 훈제 연어와 생크림 소스로 만들며, 마지막에 파슬리와 후추를 곁들인다. "스파게티 알라 노르마"(spaghetti alla norma)는 시칠리아 카타니아(Catania) 지방의 파스타로 시칠리아 출신의 유명 작곡가 빈첸초 벨리니(Vincenzo Bellini)의 오페라 '노르마(Norma)'의 이름을 사용했다. 리코타 살라타 치즈(ricotta salata cheese), 튀긴 가지, 토마토를 주로 사용하고 파슬리, 오레가노, 바질과 같은 허브로 향미를 더한다.



트로피에 알 페스토



스파게티 알라 카르보나라



스파게티 콘 레 봉골레



스파게티 알라 노르마



Hand cutting pasta

이탈리아에서 파스타를 주문하고 먹는 방법을 소개하자면, 우선 레스토랑에서 파스타를 주문할 때 메뉴판에 프리모 피아토(primo piatto) 부분을 보면 된다.

파스타 요리의 이름은 파스타의 종류, 그리고 소스의 종류로 쓰여 있다. 따라서 맨 앞에 써 있는 단어가 파스타의 종류를 의미하고 그 뒤에 있는 이름이 바로 소스를 뜻한다.

소스의 이름은 봉골레(vongole 모시조개)처럼 재료의 이름일 수도 있고 카르보나라처럼 소스 자체의 이름일 수도 있다. 이탈리아어는 쓰여 있는 대로 발음되는 읽기 쉬운 언어이기 때문에 알파벳대로 차근차근 읽어보면 평소 알고 있던 요리들이 제법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파스타를 먹을 때 일반적으로 왼손에는 스푼을 오른손에는 포크를 들고 이를 동시에 사용해서 먹는다. 하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스타를 먹을 때 포크만 사용한다. 스푼이 함께 테이블에 놓이기도 하지만, 스푼은 곁들여 나오는 소스나 치즈를 파스타 위에 끼얹거나 하는 용도로만 사용된다. 포크를 그릇 바깥쪽에 대고 면발을 집어 올려 돌려주면 되는데 파스타의 면발 몇 가닥이 포크 아래로 늘어지면 파스타가 알 덴테(al dente)로 잘 익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 덴테란 약간 덜 익은 듯하며 씹히는 식감이 있는 정도를 뜻 하는데 이탈리아 사람들은 파스타나 리조또를 먹을 때 알 덴테로 많이 먹는다. 이때 늘어지는 것이 없이

포크 주위로 다 감긴다면 파스타가 너무 익은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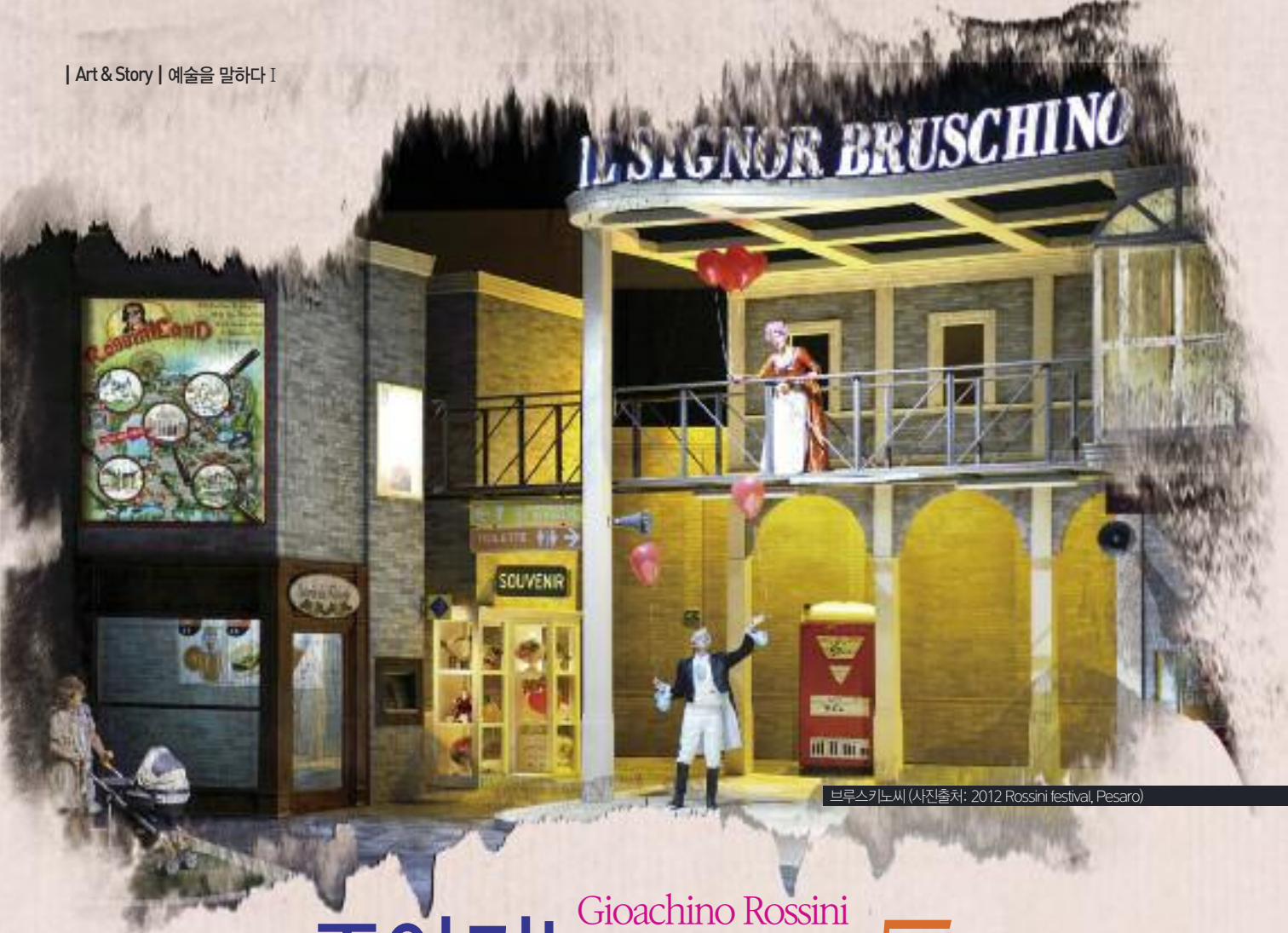
일반적으로 이탈리아에 와서 파스타를 먹어 본 사람들은 파스타가 너무 짜고 덜 익었다고 느낀다. 우리나라에서 피자나 파스타를 먹을 때 피클을 주로 같이 먹지만 이탈리아 사람들은 피클을 같이 먹지 않는다. 그리고 소스의 양도 한국에서 나오는 파스타보다 훨씬 적게 면에 묻혀 나오는 정도다. 우리나라보다 음식을 훨씬 짜게 먹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인 것이다.

음식 재료의 본연의 맛을 추구하며 요리하는 이탈리아 사람들은 건강과 맛을 동시에 챙긴다.

글_김진홍



파스타 제작과정 (15세기 저자 티퀴눔사니티스의 삽화)



브루스키노씨 (사진출처: 2012 Rossini festival, Pesaro)

Gioachino Rossini 쵸아키노 로시니 5

산 모이세극장 시절 오페라의 특징

전도 유망한 청년작곡가 로시니가 경력 초기에 베네치아 산 모이세 극장을 위해 작곡한 다섯 오페라 ‘결혼계약서’, ‘행운의 속임’, ‘비단사다리’, ‘기회가 도둑을 만든다’, ‘브루스키노씨’는 비교적 짧은 단막이다. 산 모이세극장 측은 로시니에게 처음부터 극장의 규모에 맞추어 좁은 실내공간에서 모든 사건이 이루어지도록 무대장치를 단순화시키고 합창단 사용은 불가하며 등장인물은 5명 미만으로 하라고 주문하였다.

이들 초기 희극오페라들은 몇 가지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내용상으로는 '결혼'이 핵심소재, 숨겨놓은 연인이 있고 돈 많고 욕심 많은 혹은 인정많은 노인이 등장하고 책략과 기지 가득한 젊은이들이 등장하여 사랑을 성사시키는 점이다. 음악적인 면에서는 음악으로 극의 희극성을 최고로 고조시키는 '로시니 크레센도'가 반드시 적용되며 뛰어난 기교의 바리톤이 희극의 중심에 있다는 점이다.

로시니는 이미 오페라 부파의 전통적인 형식을 깼다. 로시니는 이탈리아의 현란한 가창 양식인 벨칸토 창법을 새롭게 재창조하여 선율을 장식하거나, 앙상블과 앙상블 피날레(모든 등장인물이 무대에 나와 노래 부르며 막의 끝에 위치함)에 특징적인 리듬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를 불어넣었다.

오페라 '브루스키노씨' & 산 모이세극장과 결별

주세페 마리아 포파의 대본으로 15일 만에 작곡했다는 '브루스키노씨 Il signor Bruschino=뜻밖의 아들 Il figlio per azzardo)'은 1813년 1월 27일 산 모이세극장에서 초연했다. 이 오페라 역시 결혼을 둘러싼 젊은이들의 해프닝과 노인의 관대함이 돋보이는 비슷한 내용이였다. 이 작품에 대해서는 평도 좋지 않았고 소문도 흥흥했다.

산 모이세극장은 로시니가 베니스의 대표적인 공연장인 라 페니체 극장(Teatro La Fenice)에서 작품을 위촉받은 건에 대해 몹시 못마땅하게 여겼다. 이를 알고 있던 로시니는 산 모이세극장을 골탕 먹일 의도로 '브루스키노씨'를 작곡했다는 소문이 파다했다. 어쨌건 로시니와 산 모이세극장의 인연은 끝이 났다.



브루스키노씨 (사진출처: Teatro Signorelli)

라 페니체극장으로 이전 & 오페라 '탄크레디 Tancredi' 대성공

라 페니체극장으로의 이전은 로시니 인생에서 큰 변화였다. 그 시절 오페라는 극장이나 뮤직홀에서 축약되어 어디서든 공연은 되었지만 작곡가로서 로시니의 위상, 작품료, 오페라 장르의 확장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컸다. 산 모이세극장의 경우는 한정된 장르와 규모의 작품 밖에 올릴 수 없었지만 라 페니체로 이전하면서 이제 오페라 세리아의 시대가 로시니에게 도래한다.

오페라 세리아의 경우는 대본에서 역사적인 고증도 필요하고 대규모 합창과 무대 등 내용과 규모에서 부파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대규모였다. 로시니는 이제 진정한 오페라 주류 장르로 편입하게 된 것이다. 라 페니체극장에서 로시니에게 처음 작곡 의뢰한 오페라는 '탄크레디'이다. 당시 비극 오페라의 소재는 대부분 그리스 로마 신화, 또는 중세 영웅담에서 가져왔다.



탄크레디 (사진출처: <https://www.lesarts.com/>)

시칠리 왕국 시라쿠사의 기사로 십자군에서 맹활약한 탄크레디는 그림과 시에도 많은 등장했고, 오페라의 좋은 소재로도 인기가 많았다. 프랑스의 볼테르가 집필한 희곡 '탕크레드 Tancredi' (1759)을 토대로 이탈리아의 시인이며 작가인 게타노 로시가 대본을 집필하였다. 볼테르의 원작은 비극이었지만 당시 관중들의 선호에 따라 해피엔딩으로 대본을 수정하였다. 흔히 로시니 오페라 세리아 중 최고의 걸작으로 꼽히는 2막의 영웅 드라마(melodramma eroico) '탄크레디'는 로시니가 한 달여 짧은 작곡 기간 동안 놀라운 재능을 보이면서 완성된다. 1813년 3월 21일 베니스 라 페니체 극장에서의 초연은 마치 '구름 한 점 없이 맑고 파란 하늘에서 천둥 번개가 치는 것과 같은' 대성공을 거둔다. 모두들 '어떻게 저런 젊은이가 저런 대단한 음악을 만들어 낼 수 있던 말인가?'하면서 21세의 젊은 로시니에게 찬사를 쏟았다.

이제 로시니의 이름은 이탈리아 뿐만 아니라 전 유럽에 서서히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로시니는 비극적인 원작을 수정한 것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초연 한 달 후 루이지 레키에게 대본을 다시 부탁하여 원작대로 비극으로 페라라에서 공연했다. 비극을 싫어하던 당대 관객들에게는 외면 받았지만 오늘날 '탄크레디'는 대부분 비극으로 공연되고 있다.

»» 작품 설명 ««

오페라 '탄크레디'의 서곡은 로시니의 오페라 '시금석'에서 빌려와서 조금 손질한 것이다. 로시니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인지 이미 작곡해 놓았던 음악을 재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탄크레디'는 용맹한 전사역인데 오페라에서는 '바지역할'(여성성부가 남성 역할을 맡는 것)로 주로 메조소프라노 또는 콘트라alto가 맡는다. 이 '탄크레디' 음악은 놀랍도록 아름답고 감동적이다.

주인공 탄크레디는 변조가 많이 일어나고 저음부터 고음까지 민첩함과 경쾌함을 함께 보여야하는 고난이도의 성악기교가 필요로 하여 뛰어난 작품임에도 주역을 찾기가 쉽지 않아 자주 공연되지 못하는 면이 있다. 19세기 당시 오페라계는 하나의 원작으로 여러 개의 오페라가 만들어지는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 로시니가 이 음악을 작곡할 당시에도 '탄크레디'는 루이지 로마넬리 대본, 스테파노 파베시 작곡의 동명 오페라가 존재했다.

로시니는 '탄크레디'에서 형식과 음악 면으로는 완전히 새롭게 목가적이고 고요한 신고전주의 적인 요소를 삽입했다. 라 페니체 극장은 산 모이세극장과는 비교가 안되게 오페라 프로덕션에 투자를 많이 했고 '탄크레디'의 무대는 이 오페라의 극적인 요소만큼이나 무대도 표현이 풍부한 화려한 프로덕션이었다. 작품의

탄크레디 (사진출처: Opéra de Lausanne)



시대배경은 서기1005년경, 도시국가인 시라큐스는 비잔틴 제국과의 분규와 전쟁이 끊일 사이가 없는 상황이다.

》》 줄거리 《《

제1막: 시라큐사의 왕(아르지리오)은 내전에서 싸우던 적장(오르바차노)과 화의를 맺으면서 그 증표로 자신의 딸 아메나이테 공주를 그의 아내로 주기로 약속한다. 그러나 아메나이테는 조국의 반역자로 오해를 받고 있는 시라큐사 선왕의 아들 탄크레디와 사랑하는 사이이다. 당장 결혼식을 치뤄야하는 공주는 부왕에게 하루만 식을 늦춰달라고 사정한다. 왕은 '탄크레디'가 이곳에 나타나면 바로 처형될 것이라고 공주에게 말한다. 한편 오랜만에 고향에 돌아온 탄크레디는 설레는 마음으로 공주를 찾아오지만 당황한 공주는 재회의 기쁨도 잠시 탄크레디에게 어서 피신하라고 당부한다.

결혼은 거부하는 아메나이테에게 격분한 오르바차노는 아메나이테가 사라센 왕과 대통해 시라큐사를 팔아넘기려 했다면서 편지를 내민다. 사실은 공주가 탄크레디에게 적은 편지였다. 아메나이테는 탄크레디를 위험에 빠뜨릴까봐 변명도 할 수 없다. 결국 아메나이테는 반역자로 감옥에 갇히게 되고, 탄크레디조차도 그녀가 사라센 왕과 사랑한다고 오해한다.

제2막: 오르바차노는 아메나이테의 사형집행동의서에 서명하라고 아르지리오를 몰아 세운다. 왕은 딸에 대한 애정과 국가에 대한 의무 사이에서 갈등하다가 마침내 서명한다. 감옥에 갇힌 아메나이테는 운명을 탄식하며, 탄크레디가 언젠가는 자기의 결백함을 알게 되기를 기원한다. 그때 여전히 신분을 감춘 채 기사로서 탄크레디가 왕 앞에 나타나 아메나이테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싸우겠다고 결투를 신청한다. 결투에서 탄크레디는 오르바차노를 죽이고 아메나이테의 목숨을 구한다.

그러나 여전히 아메나이테를 의심하는 탄크레디는 사라센과 싸우는 전쟁터에서 죽기로 결심한다. 탄크레디는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지만 치명상을 입고 돌아오고 자신의 오해를 깨닫게 된다. 탄크레디는 아메나이데의 손을 잡고 결혼을 약속하지만, 곧 숨을 거두고 만다(초연 라 페니체 버전은 탄크레디가 전쟁에서 아무런 부상도 당하지 않은 채 개선하여 사랑하는 아메나이테와 결혼하여 행복하게 오래 오래 사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주요 아리아 《《

- 1막 〈O patria!...Di tanti palpiti 오 조국이여...이렇듯 가슴이 설레이다니〉
(탄크레디 :메조소프라노 또는 콘트랄토)
- 2막 〈Dove son io?...Fran quali orror 나는 어찌해야 할 것인가...
두려움 사이에서〉(탄크레디 :메조소프라노 또는 콘트랄토)
- 2막 〈Ah, come mai quell'anima 아, 나를 떠나게 하오〉
(탄크레디&아메나이테:소프라노)

글_송종건



탄크레디 (사진출처: foto tratta dal sito gbopera.it)





뉴욕 공연여행

링컨센터

많은 관광객들이 여행지에서 꼭 하는 일,
바로 자신이 감명 깊게 본 영화나 드라마의
촬영 장소를 찾아가는 것이지요.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뉴욕이 흥미로운 이유도 인기 공연이
초연되고 또 그 작품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
때문일 겁니다(물론 인기 영화나 드라마의 배경이
된 도시이기도 하죠). 게다가 뉴욕에는 뮤지컬을
볼 수 있는 브로드웨이 극장이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수준의 오케스트라와 발레단, 오페라단 등이
상주하는 공연장까지 있으니 그들의 무대도
마음껏 골라볼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황홀한
여행지가 있을까요?

아직도 운영 중인 뮤지컬 <헤드윅>이 초연됐던 호텔

뉴욕에 가면 이 호텔에 묵어보고 싶었습니다. 도로를 건너면 바로
허드슨 강이 펼쳐지고 그 강을 따라 산책로가 잘 조성돼 있거든요. 호텔
내 바와 클럽도 유명한 데다 내부도 깔끔하게 관리돼 이용객들의 평도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

한 블록만 더 가면 휘트니미술관도 있고요. 하지만 뮤지컬 팬이라면
이 호텔에 끌리는 이유가 좀 다를 겁니다. 바로 뮤지컬 <헤드윅>이 초연
됐던 곳이기니까요. <헤드윅>은 지난 1994년 뉴욕 맨해튼 다운타운의 록
클럽에서 무대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니아들의 열렬한 반응이
이어지자 대본을 쓴 미첼과 음악을 만든 트래스크는 뭔가 특별한 장소를
찾는데요. 그렇게 발견한 곳이 바로 허드슨 강가에 자리한 호텔 '리버뷰'
였습니다. 1912년 타이타닉의 생존자들이 묵었던 호텔로, 제작진은 이
호텔을 매입한 뒤 극장으로 개조해 1998년 2월 '제인 스트리트 시어터
(Jane Street Theatre)'라는 이름으로 <헤드윅>을 무대에 올렸고, 2004년
4월 막을 내릴 때까지 성공적인 공연을 이어갔습니다.

리노베이션을 거쳐 지금은 <제인 호텔>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
는데, 재밌는 것은 이 호텔의 상당수 룸이 실제 선원들 방처럼 1층이나
2층 침대만 갖춘 'Bunk Bed Cabin'입니다. 이 호텔에 대한 호기심이 커
지면서도 결국 머물지 못했던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한데, 'Bunk Bed
Cabin'의 경우 이른바 캡슐호텔처럼 방이 매우 좁은 데다 샤워시설과
화장실을 공용으로 사용해야 하거든요. 머물지는 못했지만 <헤드윅>을



링컨호텔



링컨센터

보기 위해 길게 늘어섰을 관객들을 상상하며 호텔 인근을 둘러봤습니다. 직접 가서 보니 역시 호텔에 묵지 못했던 것이 아쉽네요. 그래도 다시 뮤지컬 <헤드워>을 본다면 웬지 예전에는 몰랐던 부분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기분은 뭡까요(웃음)?

이밖에도 뉴욕을 여행할 때는 수많은 공연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스트 빌리지를 둘러볼 때는 뮤지컬 <렌트>, 워싱턴 하이츠에 간다면 뮤지컬 <인 더 하이츠>, 뉴욕의 중심 브로드웨이 42번가에서는 뮤지컬 <브로드웨이 42번가>, 헬스키친에서는 뮤지컬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를 떠올려 보시면 좋겠네요. 물론 이들 뮤지컬 모두 꽤 오래 전 뉴욕을 배경으로 한 작품이라 지금의 뉴욕과는 많이 다른 모습이겠지만요.

뉴욕 클래식 메카 링컨센터

뉴욕을 여행할 때면 대부분 주요 관광지, 특히 뮤지컬극장이 몰려 있는 타임스퀘어 인근에 숙소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뉴욕에서 한 달간 살 수 있다면 워퍼 웨스트 쪽에 머물 곳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사람에게 치이는 것도 덜하고, 센트럴파크도 가깝고, 그리고 수시로 링컨센터(<http://www.lincolncenter.org>)에 들러 다채로운 클래식과 발레, 오페라 공연을 마음껏 골라볼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공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뉴욕에서 브로드웨이 극장가만큼 자주 찾게 되는 곳이 바로 링컨센터일 겁니다. 대규모 종합예술센터라고 할 수 있는 링컨센터는 크게 뉴욕 필하모닉의 전용 공연장인 David Geffen Hall, 메트로폴리탄 오페라하우스, 뉴욕시티발레단의 전용극장인 David H. Koch Theater로 이뤄져 있는데요. 입구에서 전면에 보이는 것이 오페라 하우스로, 메트로 오페라와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무대를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왼쪽 건물에서 뉴욕시티발레단, 오른쪽 건물에서 뉴욕 필하모닉의 무대가 마련되는데, 모든 공연장에서 세계적이면서도 가장 뉴욕다운 무대를 접할 수 있는 셈입니다.

뉴욕의 클래식 음악은 1842년 뉴욕 필하모닉 창단, 1891년 카네기홀 완공과 함께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텐데요. 특히 20세기 초 정치적, 경제적 이유로 유럽을 떠난 내로라할 예술가들과 미국의



David H. Koch Theater

막대한 자본이 더해지면서 화려한 꽃을 피웠습니다. 이후 복합문화예술센터라고 할 수 있는 링컨센터가 조성되면서 언제든, 어떤 무대든 선보일 수 있는 뉴욕 클래식계의 성지가 마련된 셈입니다. 보통 9월에 시작해 다음해 5월쯤 시즌을 마무리하는 유럽의 오케스트라와 오페라단은 6월부터 8월 사이 각종 페스티벌을 통해 대중과 만나는데요. 링컨센터에서는 뉴욕 필하모닉과 메트로 오페라단이 5월쯤 시즌을 끝내면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공연이 이어져서 볼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또 7월과 8월에는 링컨센터 마당에서도 무료 연주회를 열거나 각종 공연을 상영하고, 센트럴 파크 등에서도 이들의 공연을 만날 수 있으니, 클래식에 큰 관심이 없어도 뉴욕을 얘기할 때 링컨센터와 소속 예술단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링컨센터에서 다채로운 공연 즐기기

링컨센터 가운데 1962년 첫 번째로 문을 연 David Geffen Hall(Avery Fisher Hall로 불렸으나, 2015년 더 많은 후원금을 기부한 David Geffen에게 이름을 내주었습니다.)은 뉴욕 필하모닉(<https://nyphil.org>)의 연주를 들을 수 있는 만큼 국내 관광객들도 많이 찾게 될 텐데요. 북도에는 구스타프 말러, 아르투로 토스카니니, 레너드 번스타인, 주빈 메타 등 뉴욕 필하모닉을 거쳐 간 쟁쟁한 지휘자들의 모습이 전시돼 있어 그 감흥을 더합니다. 저는 링컨센터가 마음에 들어서 공연 전 1층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의자에 앉아 사람들을 구경하곤 했는데, 갈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꼬마들까지 멋지게 옷을 챙겨 입고 공연장에 들어서는 모습이 무척이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우리나라 클래식 공연장과 달리 좌우 사이드 발코니석이 있어서 중앙보다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공연을 즐길 수 있는데요.



뉴욕 필하모닉을 거쳐 간 쟁쟁한 지휘자들의 모습



하지만 발코니석이 많지 않은 데다 인기 공연의 경우 이들 좌석마저도 가격이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특별한 할인 제도는 없지만, 공연 당일 오전이나 전날 실시하는 오픈 리허설의 경우 훨씬 싼 가격에 공연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특이한 점은 보통 층별로 좌석 등급이 달라지는 우리나라와 달리, 뉴욕의 공연장들은 같은 층이라도 중앙인지, 측면인지에 따라, 열에 따라서도 가격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David Geffen Hall 1층의 4열까지는 5열 이후와는 상당히 가격 차이가 나는데요. 아무래도 너무 앞일 경우 무대를 올려다봐야 하고,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룬 오케스트라의 소리를 듣는 데 미흡한 만큼 가격이 더 싼 것이겠죠.

우리나라에서 주로 영상으로 만날 수 있는 메트로폴리탄 오페라(<http://www.metopera.org>), 이른바 메트 공연은 뉴욕커들에게도 인기가 대단합니다. 역시 티켓 가격은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데, 가격이 꽤 비싼 편이지만 사이트에 위치한 박스석은 시야제한을 감수하면 훨씬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 대부분 현장에서 공연 당일 오전 10시부터 구입할 수 있는 입석표와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추첨을 통해 살 수 있는 러시티켓도 확률이 높지는 않지만 메트 오페라를 25~30달러에 즐길 수 있는 실속 있는 방법입니다. 이곳에서는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의 공연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옆 David H. Koch Theater에서 펼쳐지는 뉴욕 시티발레단(<http://www.nycballet.com>)의 무대와 비교해서 보는 것도 재미있을 겁니다. 뉴욕의 대다수 공연은 한 번 예매하면 환불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고요!

글 윤하정



티투스 개선문

도판 2) 《티투스 개선문》, 82년. 높이 15.4m, 너비 13.5m, 깊이 4.75m, 아치 높이 8.3m, 너비 5.36m, 로마.

흔히 의기양양하게 있는 모습을 보고 “개선장군 같다”고 합니다. 개선장군은 중요한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온 장군을 말하지요. 나라를 위해 큰 일을 하고 온 이들의 업적을 치하하는 다양한 방식 중에는 개선 행진도 있었습니다.

서양에서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그 역사적 기록을 찾아볼 수 있고, 로마에서는 전설적인 시조인 로물루스가 처음으로 개선 행사를 했다고 합니다. 고대 로마를 배경으로 하는 고전 영화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바로 그 개선 행사입니다. 오늘날의 카퍼레이드도 이런 고대의 개선 행사에서 유래한 것이고요.

웅장한 개선 행사에는 여러 가지 장식품이 동원되었는데, 개선문이 가장 잘 알려져 있습니다. 문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여닫는 문이 아니라 가운데에 거대한 아치가 있는 건축물입니다. 이런 아치로 된 문은 로마를 둘러싼 성벽에도 곳곳에 뚫려 있었지만, 홀로 웅장하게 서 있는 개선문은 아무나 드나드는 평범한 출입구와는 구분됩니다.

오늘날에도 로마에 가면 몇몇 개선문을 볼 수 있는데요, 이 중 가장 유명한 것으로



도판 1) 티투스의 예루살렘 정복을 기념하는 동전

〈티투스 개선문〉이 있습니다. 이는 로마 황제 티투스가 유대인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예루살렘을 함락한 사건을 기념하는 개선문입니다(도판1). 이름은 〈티투스 개선문〉이지만, 티투스 황제가 죽은 뒤 그의 동생이자 후계자인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세운 것입니다.

서기 71년 로마의 황제 베스파시아누스의 장남 티투스는 로마가 통치하던 유대 지방의 봉기를 진압하고 로마로 개선합니다. 당시 로마는 폭군 네로 황제 이후의 혼란기였고, 황제에 오른 베스파시아누스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들의 승리는 정치적으로 의미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티투스가 가져온 어마어마한 전리품과 수많은 노예는 로마인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베스파시아누스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는데 기여했습니다. 티투스의 개선 행사는 화려했지만, 이런 이벤트는 시간이 지나면 잊힙니다. 그렇기에 황제는 좀 더 오랫동안 로마인들에게 이 업적을 각인 시킬 기념물, 즉 개선문을 세우려 했습니다.

〈티투스 개선문〉의 위치를 보면 정치적 상징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개선문은 고대 로마의 주요한 의식을 치루던 ‘성스러운 길(사크라 비아)’의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합니다. 또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네로 황제의 폭정을 대표하는 〈황금의 집〉 자리에 지은 콜로세움과 로마 정치의 중심지인 포룸을 연결하는 중요한 지점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개선 행진이 거행되었던 길에다가 영구적인 개선

문을 세우면 티투스 황제와 그 가문의 업적을 계속 기억할 수 밖에 없겠지요.

개선문에는 티투스의 업적을 기리는 조각과 문구가 여럿 있습니다. 개선문의 맨 윗부분 정사각형 부분(애타치라고 합니다)에는 “로마의 원로원과 인민들은 이 아치를 신성한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드님이신 신성한 티투스님께 바칩니다”라는 문구가 라틴어로 새겨져, 이 개선문이 누구를 위해 세워졌는지를 분명히 합니다. 그 아래를 보면 아치와 상단의 직사각형 부분이 이루는 삼각형 공간에 달린 승리의 여신이 명예를 상징하는 월계관을 들고 있습니다. 문 역할을 하는 아치의 안쪽 부분의 양쪽으로는 티투스의 승리를 묘사하는 부조가 있습니다(도판 2).

한쪽 패널은 로마 병사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한 전리품을 로마로 옮기는 장면을 보여줍니다(도판 3). 가지가 일곱 개 달린 촛대가 눈에 띄는데, 메노라라고 하는 이 촛대는 유대교를 상징하고 오늘날에는 이스라엘의 상징으로 쓰입니다. 은 나팔과 제의용 빵을 올리는 제단도 전리품에 포함되어 있네요. 오른쪽의 개선문과 메노라의 받침대를 통해 원근법을 보여주려 한 것도 보입니다. 병사들이 높게 들고 있는 두 개의 판에는 이들이 정복한 도시의 이름이 적혀 있을 겁니다. 개선 행사가 끝난 후 이 전리품들은 ‘평화의 신전’에 보관되었다고 합니다.

반대쪽 패널에는 티투스의 개선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도판 4).

도판 3) 〈티투스 개선문〉의 세부





도판 4) 〈티투스 개선문〉의 세부

토가를 입고 네 마리의 말이 끄는 마차를 탄 티투스의 곁에는 알레고리적인 인물도 있습니다. 승리의 여신이 다시 등장해 그의 머리에 월계관을 씌워주고, 로마를 의인화한 인물이 말을 끌고 갑니다. 부조지만 환조에 가까울 정도로 깊게 조각되어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이는 이 조각에 운동감과 생동감을 부여합니다.

아치의 맨 꼭대기 부분을 보면 또 다른 부조가 있는데, 여기에는 티투스 황제가 독수리의 등에 탄 채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는 티투스 황제가 죽은 뒤 신의 반열에 올랐음을 상징합니다(도판 5).

〈티투스 개선문〉은 이후 수많은 개선문의 모델이 되었는데, 가장 유명한 것으로는 파리의 개선문과 뉴델리의 인디아 게이트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에 있는 독립문도 〈티투스 개선문〉의 형태에서 영향을 받았구요.

〈티투스 개선문〉은 승자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패배한 유대인들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을까요. 티투스는 승전 이후 유대인들의 정신적 구심점인 성전을 파괴했는데, 남아 있는 서쪽 벽의 일부가 오늘날 〈통곡의 벽〉으로 알려진 곳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을 잃은 유대인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를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글_ 황주영



도판 3) 〈티투스 개선문〉의 세부

음악 in Europe

Festival

클래식... 많은 사람들이 부담스러워 하는 장르이다. 클래식을 들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올 수가 없다고 이야기 한다. 하지만, 음악은 사람과 사람을 소통하게 해 주고, 말이 아닌 음으로 표현하는 세계적 공통어이기 때문에, 200년 넘게 사람들의 사랑을 꾸준히 받고 있다. 클래식 음악의 본고장인 유럽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음악 축제들이 있다.

유럽사람들이 즐기는 클래식 음악 축제. 어렵고 이해하기 힘든 클래식 음악 축제라면 지금까지 그 명맥을 이어오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다. 지식으로 배우는 클래식 음악이 아닌, 몸으로 느끼는 클래식 음악 축제를 소개해 볼까 한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3대 클래식 음악 축제, 바로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루체른 페스티벌이 3대 클래식 음악 축제라고 할 수 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가 태어난 잘츠부르크에서 열리는 축제. 잘츠부르크에 가면 어딜 보더라도 모차르트의 얼굴을 볼 수 있다. 연필, 자, 지우개, 벡타이, 양말, 초콜릿 등등 이 자그마한 도시에 모차르트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과연 이 잘츠부르크는 어떻게 유지할 수 있었을까 걱정이 될 정도이다.



자타가 인정하는 세계 최고의 종합 음악제인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은 1920년에 시작을 해서 벌써 100년 가까이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으며, 7월 18일에 시작해 8월 31일까지 열리는 이 축제에는 매년 28만명의 관람객이 참석하는 전세계인의 축제이다. 한국에서는



전국 일부의 매가박스에서 실시간 중계를 할 정도로 한국에서도 이 축제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매니아들이 벌써 상당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잘츠부르크 페스티벌에서 가장 비중 있게 연주되는 장르는 뭘니 뭘니 해도 오페라이다. 빈 필이나 세계적인 솔리스트들의 연주도



물론 훌륭하지만, 카리안을 거치면서 오페라가 페스티벌의 중심이 되었다. 카리안은 이 무대에 세계적인 오페라 스타들을 모아 최고의 공연을 통해 이 페스티벌의 위상을

높이게 되었고, 소프라노 조수미 역시 이 무대를 통해 세계적으로 알려지게 되는 계기를 맞이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도 해마다 세계 유명 레이블의 스카우터들이 이곳에서 공연을 하는 신인들의 무대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 모차르트의 작품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페스티벌은 연극부터 솔로 연주까지 다양한 음악 예술을 즐길 수 있는 페스티벌이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

독일의 작곡가 바그너는 자신의 작품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공연을 하기 위해 극장을 건축하게 된다. 1850년부터 자신만의



페스티벌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바그너는 1876년 오페라 '니벨룽의 반지'와 함께 페스티벌을 시작하게 된다.

바그너가 함께 참여한 바이로이트 축제 극장은 그 당시 왕족과 귀족들의 사교장이었던 궁정극장의 전통을 과감히 버리고, 고대 원형극장처럼 넓은 아래층에 1,974개의 좌석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배치는 어느 자리에 앉든지 어떠한 방해도 받지 않고 무대 전체를 보고 즐길 수 있게 청중들을 배려한 것이다.

이 축제극장의 외형적 특징은 객석에서 오케스트라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무대 밑으로 깊숙이 들어간 오케스트라 박스는 지붕으로 덮여있고, 관객들이 더욱 더 무대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연 중 원전소등을 하기도 하였다.

바그너는 최적의 음향을 위해 건물 전체를 나무로 지었다. 의자와 바닥도 모두 나무며, 중간 통로 없이 50개 좌석을 일렬로 만들었다. 극장 자체가 '악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울림이 좋다. 객석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 더운 날에는 그야말로 '찜통'이 되기도 한다. 연로한 관객들이 종종 실신을 하기도 하는데, 최근에는 71세 노인이 음악극 '신들의 황혼'을 관람하던 도중에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음악 앞에 만민은 평등하다'고 말했던 바그너는 독일의 여러 가지 전설과 신화를 바탕으로 오페라를 작곡했다. 오페라의 대본까지 다



썼을 정도로 자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던 작곡가이다. 또한 이러한 즐거리의 오페라는 독일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충분했다.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우스갯소리로 미친 작곡가, 미친 연주자, 미친 관객 3박자로 이루어 진다고 한다. 이 페스티벌의 표를 구하기

위해 10년이상 기다린 사람들이 태반이고, 오직 바그너의 작품만 연주되는 이 페스티벌에, 매일 매일 끊이지 않고 연주를 하는 연주자들, 그리고 바그너의 추종자들인 바그네리안. 정장을 입고 긴 시간 땀을 뻘뻘 흘리며 공연을 즐기는 관객들. 그들에게 이 바이로이트 페스티벌은 성지와도 같은 것이 아닐까?

몇 해 전 프랑스의 현대음악 작곡가 베에르 블레즈가 바그너의 오페라 '로엔그린'을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페스티벌 기간에 공연을 한 적이 있었다. 바그너의 원곡을 프랑스의 만따라 작곡가가 천하게



해석했다고 하여, 연주 중에 토마토를 던지는 일도 있었다. 매년 10만명 이상이 모여드는 이 페스티벌은 바그너 음악만을 위해 존재하며, 전 세계 바그너의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축제입니다.



음악 in Europe

유럽 각지에서 펼쳐지는 음악 축제는 전 세계인의 이목을 집중 시키기에 충분하다. 바캉스기간에 열리는 축제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의 관객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참가하는 어린이들, 젊은 남녀의 관객들. 공연을 관람하며 눈물을 흘리는 어르신들의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며 음악이 주는 감동과 즐거움은 2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살아 있음을 느낄 수 있다

온 몸으로 느낄 수 있는 클래식 음악 축제, 유럽의 문화를 입체적으로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번 여름 휴가계획이 없으시다면, 유명 관광지에서 열리는 클래식 축제에 가족과 함께 가보는 것도 좋을것이다.

글_ 김용진

뮤지컬처럼 사는 인생

제4화

줄리앙 마쉬가 새 작품을 만든대!, 일자리!

뮤지컬 42번가

어느 인생이든 치열하지 않은 인생이 있을까?

어느 분야에서건 성공을 원하고 그 성공을 위해 자신의 일생을 걸고 달려 나가는 것이 아마도 우리들 대부분의 모습이지 않을까?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의 첫 단추는 바로 달려갈 필드, 즉 일자리가 있어야 달리든 뛰든, 성공이든 실패든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뭔가... 실낱같은 희망이라도 있어야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청년들 일자리가 없다고 합니다. 희망 없는 포기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가장 크게 오르내리는 이야기가 바로 일자리, 청년 취업이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청와대에 현황 판이 따로 설치되고 일자리를 위한 특별 위원회를 설립할 정도로 긴급하고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 되었고 이는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하고 걱정해야 할 국가적 고민거리가 된 것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예술계 분야는 그 심각성이 더해가는 것 같습니다. 최근 또 젊은 예술가 중 한사람이 어려운 현실의 벽에 막혀 생을 마감하는 불행한 일이 생겼고 문화예술, 그 중에서

공연예술 쪽 종사자들의 처우가 가장 낮아서 국내 저소득 직업 1,2위를 다투는 어둡고 답답한 현실 속에 우리의 공연 판은 내 몰려있습니다.

그나마 뮤지컬은 좀 나은 것 아니냐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뭐가 더 나은 것 이라는 건지 모르겠지만 뮤지컬이 흥행적으로 성공을 많이 하기 때문에 종사자들의 경제적 수익 창출이 더 많지 않느냐는 단순 논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어느 분야나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크고도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그 성공을 향해 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먼지들 중 한 점으로 살아가는 동안 갈고 닦고, 참고, 견디고, 버티며 성장하는 과정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뒤 따릅니다. 경제적 어려움 뿐 아니라 때로는 오해 속에도 빠지게 되고 때로는 모함을 받기도 해서 결국 포기하고 떠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기 그 모든 인생사의 이야기를 뮤지컬 극장으로 가져온 작품이 있습니다. 화려한 간판으로 치장된 미국 브로드웨이 42번가를 모티브로 쇼 비즈니스에서 살아남기 위한 치열하고도 치열한 생존 스토리인 뮤지컬 42번가가 바로 그 작품입니다.

다 아는 이야기

시골소녀 상경기 : 상투적인 아메리칸 드림

뮤지컬 42번가는 1933년 개봉한 뮤지컬 영화 42번가 (42ND STREET)를 1980년에 무대화 시킨 작품입니다.

알렌타운 출신의 한 뮤지컬 지망생이 우여곡절 끝에 브로드웨이에서 주인공을 맡게 된다는 소위 말해 '시골소녀 상경기' 인 작품입니다.

사실 이 작품을 이야기 할 때 화려한 쇼와 단순한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일차원적인 볼거리 재미를 제공하는 공연으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주 간단한 시골소녀의 상경기를 통해 아메리칸드림을 이뤄낸 기적의 이야기를 보며 사람들은 나에게도 저런 기회가 오길 바라는 환상만 가득한 이야기로 간단히 치부되기 쉽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스토리의 서브텍스트 (Sub-Text : 숨은 이야기)를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매 장면마다 휘몰아치는 화려한 스펙터클 쇼는 관객들로 하여금 현실의 고민과 걱정에서 잠시 떠나 그야말로 화려하고도 화려한 쇼비즈니스 세계로 잠시 안내해 주기 때문입니다.

초연 연출과 안무를 맡은 고어 챔피언(Gower Champion)의 뛰어난 안무력과 쇼 연출력은 탭댄스를 추고 있는 긴 코러스라인 위로 천천히 커튼이 오르며 커튼 아래서 발목만 보인 채로 웅장하게 진행되는 오프닝에서부터 모두가 떠난 무대 위에서 연출가 줄리앙 마쉬가 화려함 뒤의 음탕하고 교활하고 악랄한 42번가를 노래하며 막을 내리는 엔딩까지 한순간도 무대 위에서 눈을 떼지 못하게 합니다. 공연이 초연된 1980년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탭댄스 안무들은 이제 탭댄스계의 교과서가 되어버렸을 정도로 완벽한 구성을 갖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게다가 시간이 흘러 무대장치들의 화려함이 더해지고 기술의 구현이 풍성해짐에 따라 뮤지컬 42번가는 점점 더 사랑받는 뮤지컬이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이 이 공연을 지금까지 끌고 온 주된 요인이었을까요?

물론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생각됩니다만 제 생각은 좀 다릅니다. 저는 시골소녀 상경기라는 아주 간단하고 보편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봅니다.

조금 특별한 이야기

시골소녀 상경기 : 개인의 희망이 전체의 희망으로

주인공 폐기소여는 알렌타운이라는 시골에서 뮤지컬 스타의 꿈을 안고 상경합니다. 오디션 날부터 실수 연발이었지만 우연히 거리에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본 연출가 줄리앙 마쉬에게 발탁되어 공연 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하지만 공연 팀 안에서도 이리 저리 차이이며 사건에 휘말리다가 여주인공 도로시 브룩의 눈 밖에 나는 신세가 됩니다. 결국 오해와 질투와 모함에 부딪혀 팀에서 쫓겨 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다리를 다쳐 공연이 불가능해 진 도로시 브룩을 대신할 만한 실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폐기소여뿐이라는 것을 알게 된 제작진은 폐기를 무대에 세우고 모두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렇게 구구절절 적지 않아도 첫 소절을 읽기 시작할 때 마지막이 상상 되시겠죠. 이미 여러 편의 영화에서, 뮤지컬에서 시골소녀 상경기는 다양하게 구현되었으니까요. 잘 아시는 대표작으로는 캐리비언의 해적으로 유명한 제리 브룩하이머가 제작한 코요테 어글리 (Coyote Ugly, 2000년)도 있고 로보캅과 원초적 본능의 감독 폴 베히벤의 쇼걸 (Show Girl, 1995년)도 같은 패턴의 작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영화로 치면 42번가는 1933년 작품이니 원조 격이겠지요.

이 원조의 이야기가 아직도 계속해서 우려내고 우려내져 다시 작품으로 만들어 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도 '희망'이라는 끈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누가 봐도 아무것도 없는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재능과 노력 하나만 갖고 있는 어찌 보면 초라하고 보잘 것 없는 한 사람이 거대한 사회와 맞서 싸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바로 희망이 아닐까 싶습니다.

공연 중에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공연을 앞두고 새로운 희망에 가득한 폐기에게 줄리앙이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네가 무대에 설 때 넌 그저 40개의 먼지에 불과해!' 이렇듯 먼지로 취급 받는 한 사람에게 후반부에 가서 같은 상황에 마주한 줄리앙은 이렇게 말합니다. '100명의 일자리가 너에게 달려있어, 넌 우리의 희망이야'

폐기는 첫 등장에서부터 실수 연발이고 오디션에서 탈락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제시간에 와 놓고도 오디션에 들어올 용기가 없어 한 시간을 밖에서 서 있기도 한 바보 같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일어나 긍정적으로 탭댄스를 추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바로 '희망'이라는 단어의 아이콘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갖은 오해와 모함 속에서 팀에서 쫓겨나듯 떠나 고향으로 가려 할 때 폐기의 마음을 돌려놓는 것은 폐기가 뮤지컬 팀 전체의 마지막 '희망'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전체 동료들이 폐기가 잠시 포기해 버린 브로드웨이라는 '희망'을 자극해 폐기의 마음을 돌려놓습니다. 이때부터 폐기의 개인적인 희망은 백 명의 일자리가 달린 팀 전체의 희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즉 40개의 먼지중 하나인 먼지가 갖고 있는 희망이 전체를 구해 줄 희망이 되는 과정이 바로 이 뮤지컬 42번가라 할 수 있습니다.

불황속에서 피어나는 꿈

또 하나 덧붙이자면 이 영화가 만들어진 시대, 이 공연이 배경으로 하고 있는 1930년대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929년을 시점으로 1933년 정점을 이루었다는 미국의 경제 대 공황은 미국 역사상 가장 끔찍한 불황의 시대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중 경제의 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던 뉴욕, 맨하튼의 모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폐자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맨하튼을 중심으로 한 주식시장이라는 새로운 부의 흐름이 무너졌으니 도시의 모습이 어떠했을지는 짐작이 가는 부분입니다. 이 작품의 배경이 바로 이 시기입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희망이 안 보이는 시기에 유일하게 행복

한 노래가 울려 퍼지던 거리인 뉴욕 맨하튼 브로드웨이와 42번가가 만나는 길, 타임스퀘어가 있고 뮤지컬 극장들이 즐비했던 바로 그곳의 이야기입니다. 그 곳에서 무너진 경제와 암담한 현실 속에서 잠시나마 희망의 꿈을 꾸고 새로운 에너지를 찾아 내일을 설계했던 곳, 바로 42번가입니다.

이 작품이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불황속에서, 암울한 현실 속에서 줄리앙 마쉬가 새 공연을 만든다! 일자리! 를 외치며 '할 수 있다'는 희망과 꿈을 갖고 모인 젊은이들이 발목이 부러져라 연습해 만든 공연으로 관객들의 새로운 꿈과 희망을 불 지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구구절절 정리해 보자면 폐기소여가 갖고 있는 성공에 대한 개인의 희망이 뮤지컬 공연단을 살리는 팀 전체의 희망이 되고 그 희망들이 모여 최선을 다해 만든 공연으로 1930년대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던 관객들에게 새로운 꿈과 희망이 된다는 아름다운 성공스토리라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불황의 시기에 있으십니까?

아무것도 없고 현실의 벽은 높고 쫓겨나고

가로막히고 두려우십니까?

오디션 장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겠고 대책도 안서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시겠습니까?

하지만 한 사람의 희망, 그 희망이 만드는 내일이

내 주변의 희망이 되고 그 주변의 희망이 모여

더 큰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뮤지컬 42번가처럼 말입니다. 파이팅!



글_ 오세준



Performances

7·8월 공연가이드

2017 울산 전국합창경연대회 & 페스티벌

공연정보 7. 6.(목) 13:00 대공연장
7. 7.(금) 12: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광역시 / ubc울산방송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광역시 승격 20주년 기념 전국 합창경연대회 & 페스티벌

국악관현악과 함께하는 제21회 창작동요발표회

공연정보 7. 22.(토)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동요사랑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의 아동문학과 전국 유명 아동문학가의 좋은 글에 새로 곡을 붙여 만든 울산창작동요 30여곡을 울산 어린이들을 통해 발표

차소민무용단 정기공연 '심청이 인당수에 빠지다'

공연정보 8. 8.(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차소민무용단
입 장 료 A석:10,000원
공연개요 심청가의 심청이라는 인물의 재조명을 통해 조선 중기의 효부사상을 사회적인 가치로 내세운 당시 사회 분위기를 접해볼 수 있는 한국창작 무용

청소년 드림 컨퍼런스

공연정보 8. 15.(화) 17:0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불우청소년 선도회 울산광역시지부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지역 중,고등학생들의 끼와 재능을 발휘하는 청소년 발표회

구립교향악단 제56회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8. 22.(화)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남구립교향악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시민들의 정서함양 및 지방 문화 예술 발전에 기여를 위한 클래식 및 오페라 공연

제17회 엄영진판소리 국악연구회 정기연주회 가족 창작 국악뮤지컬 '밥보올보' (창극)

공연정보 8. 23.(수) 20: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엄영진판소리국악연구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가장 한국적인 정서의 고전소설 바보온달과 평강공주의 사랑 이야기를 각색한 가족 창작 국악 뮤지컬

버숨새 난장이야기 歌舞樂(가무악) Korea

공연정보 8. 27.(일) 19:00 대공연장
공연주최 풍물예술단버숨새
입 장 료 A석:20,000원
공연개요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시대의 아이 콘 등 다양한 문화코드를 주제로 설정, 극적인 요소를 가미한 전통 연희 이야기 난장



Exhibitions

7·8월 전시가이드

제2회 윤기동 사진전

전시기간 7. 4. ~ 7. 9.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윤기동
 전시내용 수 십에서 수 백장의 이미지를 레이어 작업을 통해 한폭의 유화 처럼 표현한 사진 작품 30여점 전시

제45회 울산서도회 회원전

전시기간 7. 4. ~ 7. 9.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도회
 전시내용 한문, 한글, 문인화 등 다양한 장르의 서예 작품 70여점 전시

제51회 울산전국사진촬영대회

전시기간 7. 4. ~ 7. 9.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작가협회
 전시내용 한국사진작가협회 51번째 공모전 입상작 120여점 전시

제10회 울산사진학회 정기전

전시기간 8. 4. ~ 8. 9.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사진학회
 전시내용 울산사진학회 회원들의 지금까지 시도 한 적이 없는 표현방법으로 재현한 미술작품 50여점 전시

제10회 반구대전

전시기간 8. 4. ~ 8. 9.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각협회
 전시내용 울산의 상징인 태화강 십리대숲의 소중함을 공유하고 태화강 주변 마을의 터전에 서식하는 조릿대의 종류와 그에 얽힌 사연 등을 현대서각 공예로 표현한 작품 총 60여점 전시

제1회 배성희 개인전

전시기간 8. 4. ~ 8. 9.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배성희
 전시내용 함께사는 나무를 주제로 유화 그림 약 25~30점 전시

제8회 울산신문보도사진전

전시기간 8. 4. ~ 8. 9.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신문사
전시내용 울산신문 창간 11주년을 맞아 지난 1년간의 보도사진 기록을 전시하여 시민들에게 알람으로써 친환경도시 울산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산업수도 울산을 가꾼 시민들의 긍지를 제고하고 미래울산의 가능성을 제시, 사진 작품 총 50여점 전시

제21회 울산광역시서예대전

전시기간 8. 11. ~ 8. 16.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서예협회
전시내용 제21회 서예대전 시상식 및 수상작품 전시 총 300여점 전시

울산 제주 미술 교류전

전시기간 8. 18. ~ 8. 23. (6일간)
전시장소 제1,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전시내용 500여명 회원들의 여러 장르 작품들과 제주특별자치도 미술협회 300명의 작품 중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총 300여점 전시

울산환경미술협회 정기전

전시기간 8. 18. ~ 8. 23.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환경미술협회
전시내용 환경에 대한 서양화, 동양화, 조소, 문인화, 민화, 공예, 서예, 사진 등의 개인작품 100여점 전시

울산현대회화작가회 교류전

전시기간 8. 25. ~ 8. 30. (6일간)
전시장소 제1,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현대회화작가회
전시내용 울산지역문화의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는 100호 작품 총 60여점 전시

제3회 정원섭 사진전

전시기간 8. 25. ~ 8. 30.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정원섭
전시내용 세 번째 개인전 전시로 '존재의 가치는 아름답다'라는 주제의 사진 25여점 전시

제21회 경상일보 보도 사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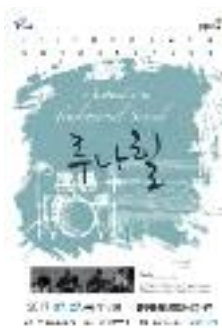
전시기간 8. 25. ~ 8. 30.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경상일보
전시내용 지난 1년동안 울산지역의 사건 사고를 비롯해 시민들의 삶 속에서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하고 싶은 장면, 각종 사건 사고 현장의 찰나 등 경상일보 지면을 통해 독자와 시민들의 눈을 사로 잡은 60여 점의 보도사진을 전시

중구문화의전당



2017중구문화의전당 백건우 피아노 리사이틀

- 일 시 : 7. 13.(목) 19:30
- 장 소 : 함월홀(2층)
- 관 람 료 : 전석 3만원
- 공연개요 : 음악의 성인으로 영원히 추앙받는 천재 작곡가 베토벤의 음악을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열정으로 느껴볼 수 있는 공연



브런치 콘서트「루나힐과 함께하는 행복한 아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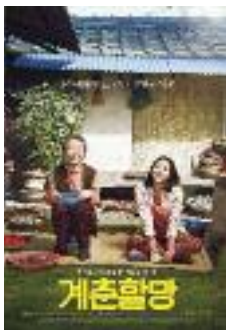
- 일 시 : 7. 27.(목) 11:00
- 장 소 : 어울마루(지하1층)
- 관 람 료 : 전석 10,000원
- 공연개요 : 어쿠스틱&한국적인 재즈사운드의 조화로 현재진행형 사운드의 공연

북구문화예술회관



무료가족영화상영 『도리를 찾아서』

- 일 시 : 7.26.(수) 19:00
- 장 소 : 공연장
- 관 람 료 : 무 료



북구청춘극장 『계춘할망』

- 일 시 : 7.12.(수) 14:00
- 장 소 : 공연장
- 관 람 료 : 무 료



『M&M's 콘서트』

- 일 시 : 7.19.(수) 19:30
- 장 소 : 야외공연장
- 관 람 료 : 무 료
- 공연개요 : 해설이 있는 클래식 음악회 (우천 시 2층 공연장)

현대예술회관



김창완 밴드 : 몽글 콘서트

- 일 시 : 7. 7.(금) 20:00
- 장 소 : 대공연장
- 관 랑 료 : 1층 66,000원, 2층 44,000원
- 공연개요 : '청춘과 힐링의 아이콘' 김창완 밴드와 함께 떠나는 가슴 몽글한 음악 여행!



추리코믹스릴러연극 '행오버'

- 일 시 : 7. 5.(수) ~ 7. 22.(토)
- 장 소 : 소공연장
- 관 랑 료 : 전석 25,000원
- 공연개요 : 미궁의 밀실살인사건을 두고 펼쳐지는 스릴 가득한 90분의 추리게임!



데이브 코즈 내한공연

- 일 시 : 9. 19.(화) 20:00
- 장 소 : 대공연장
- 공연주최 : 현대예술관
- 관 랑 료 : 1층 55,000원, 2층 35,000원
- 공연개요 : '세계 3대 색소폰 연주자'로 불리는 색소포니스트 데이브 코즈의 내한 공연



탱고 파이어 내한공연

- 일 시 : 10. 24.(화) 20:00
- 장 소 : 소공연장
- 공연주최 : 현대예술관
- 관 랑 료 : R석 85,000원, A석 65,000원, B석 45,000원
- 공연개요 : 뜨거운 몸짓으로 전 세계를 열광 시킨 아르헨티나 오리지널팀 '탱고 파이어'의 매력적인 탱고 무대

울주군문화예술회관



세계 비보이 챔피언 엑스트림크루 SHOW "헤이 미스터 빅"

- 일 시 : 7.15.(토) 14:00
- 관 랑 료 : 전석 12,000원
- 공연개요 : 동동한 비보이 세진의 사랑 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7월 하우스콘서트 4인의 첼리스트

- 일 시 : 7.26.(수) 20:00
- 관 랑 료 : 전석 10,000원
- 공연개요 : 4인의 첼리스트(심준호, 배성우, 이경준, 이호찬)가 들려주는 풍성한 무대! 7월 하우스콘서트는 2017 원먼스 페스티벌의 일환으로 진행



심성아 초대전

- 일 시 : 7.11.(화)~7.31.(월) 9:00~18:00
- *매주 '월' 휴관
- 관 랑 료 : 무료
- 공연개요 : 울주아트 신진작가 공모 당선자 심성아 초대전은 집을 소재로한 풍경 속에서 개개인의 초상을 보여줌



울주시네마_와치가면의 역습

- 일 시 : 6.8.(토) 11:00, 14:00, 16:00
- 관 랑 료 : 전석 4,000원
- 공연개요 : 매월 둘째주 진행되는 즐거운 상상마당! 정체를 숨긴 채 '와치가면'이 된 지노의 챔피언을 향한 새로운 배틀



울주시네마 무비나잇_아메리칸 셰프

- 일 시 : 7. 8.(토) 19:00
- 관 랑 료 : 전석 2,000원
- 공연개요 : 뉴올리언스에서 LA까지, 푸드트럭 셰프의 맛있는 도전<아이언맨> 존 파브로 감독의 푸드코미디



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혜·택

문의 : 226-8242

롯데호텔 울산



이용금액 15~5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60-4300

메가박스(울산점)



영화 3천원, 팝콘 콤보 2천원
현장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중구 젊음의거리 73
문의 | 1544-0070

밀레(달동점)



정상가의 10% 할인 (용품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126
문의 | 052-260-0022

카페베네(울산남구청점)



전 메뉴 10%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청 맞은편
문의 | 052-267-1736

파리바게뜨(울산예술회관점)



이용금액 5% 할인 (중복 할인 가능)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회관 앞(남측)
문의 | 052-272-8279

THE ALLEY COFFEE(엘리커피)



음료 5% 할인
(에스프레소, 아메리카노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신정로 33번길 30
문의 | 010-8348-4800

썬 터



이용금액 5% 할인
(음료, 단체식 등 일부 제외)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회관 전사동 1층
문의 | 052-274-439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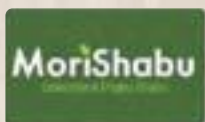
소풍가



이용금액 5% 할인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신정동 극동스튜디오 1층 상가
문의 | 052-275-3579

모리샤브



이용금액 10% 할인
(중복 할인 불가)

대상 | 유료회원 이용 당일 공연티켓 소지자
위치 | 남구 변영로 250번길 9 세이브존 7층
문의 | 052-260-9150

신라스테이



이용금액 60~70% 할인
(객실 및 식당 단체 이용시 사전 문의바람)

대상 | 유료회원
위치 | 남구 삼산로 282
문의 | 052-901-9000

울산문화예술회관 유료회원 가입안내

가입 방법

| 회원기간 | 1년, 3년, 5년, 10년

| 회원종류 | 일반회원, 청소년회원, 가족회원, 단체회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유료회원 전환 (단체회원의 경우 전화 문의)

구분	가입기준	연회비				혜택인원
		1년	3년	5년	10년	
일반회원	만 19세 이상	20,000원	50,000원	80,000원	150,000원	2명
청소년회원	만 7세 이상~만 18세 이하	10,000원	25,000원	40,000원	75,000원	1명
가족회원	한가족	40,000원	100,000원	160,000원	300,000원	4명
단체회원	기업체 또는 단체(10명 이상)	10,000원 (1인)	25,000원 (1인)	40,000원 (1인)	75,000원 (1인)	가입인원

| 가입문의 | 울산문화예술회관 052-275-9623~8 <http://ucac.ulsan.go.kr>

유료회원 혜택

월 1회 발행되는 문예정보지(ARTS FRIEND) 우송

각종 공연정보 및 이메일 문자 안내

각종 공연 · 전시 할인 제공

- 연간 50여회의 울산시립예술단(교향악단, 합창단, 무용단) 공연 30% 할인
- 기획공연 30% 이내 할인
- 뒤란 등 상설기획공연 30% 할인
- 유료회원을 위한 특별공연 초대
- 회관 주최 유료전시 30% 할인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적립률 공연별로 상이, 유효기간 5년) ※ 대관공연 적립제외

- 회관 주최 공연 및 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의 5%, 회원가입비의 10%
- 적립된 마일리지 포인트는 회관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시 사용가능

문화예술회관 협약점 이용 시 특별혜택 제공

울산시립교향악단

MAESTRO SERIES 4

Ulsan Philharmonic Orchestra
194th Subscription Concert
Maestro Series 4
Fri 8th September, 2017, 8:00PM
Conductor : Gerard Schwarz
Cello : Young-chang Cho

마에스트로 시리즈 4



2017. 9. 8.(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지휘 제라드 슈바르츠 첼로 조영창

